

#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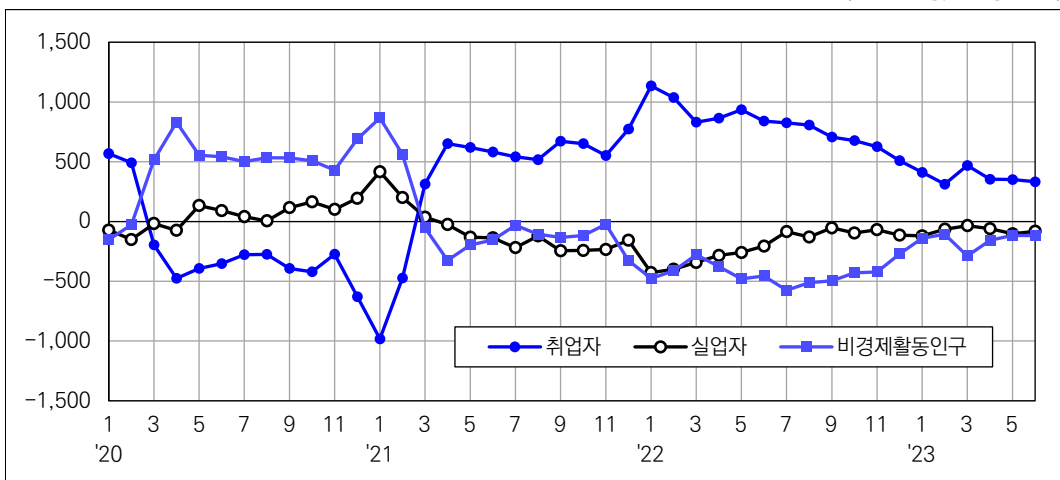
동향분석실

## 1.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올해 고용은 긴축 통화정책과 높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 변수와 함께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까지의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완만하게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97천 명 증가, 2분기에는 346천 명 증가하면서 상반기 372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연말에 예상되었던 수치보다 유의하게 높다. 고용률은 2021년 2월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실업률은 동 기간 감소 중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자 수는 증가했고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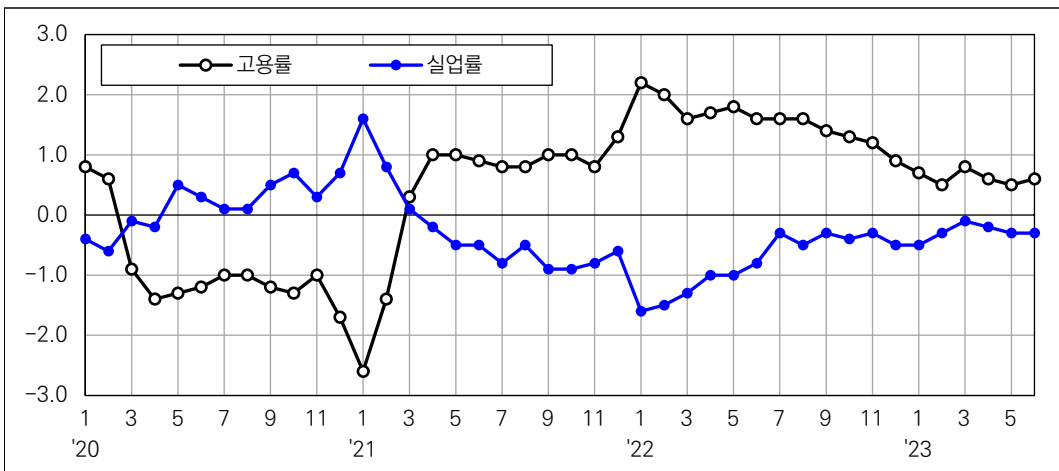
	상반기			분기		
	2021	2022	2023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취업자	119	941	372	604	397	346
실업자	60	-319	-77	-92	-72	-81
비경황	117	-413	-154	-373	-178	-130
고용률	-0.1	1.8	0.6	1.2	0.7	0.5
실업률	0.2	-1.2	-0.3	-0.3	-0.3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KOSIS.

과거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와 같이 취업자가 감소했던 시기 이후에도 감소분을 뛰어넘는 고용증가가 2년 이상 이어진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시기는 인구가 40만~60만 명가량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기 이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컸다고 하더라도 고용률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구 증가폭이 1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폭을 뛰어넘는 취업자 증가가 큰 폭의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2021년 이후에 꾸준히 고용률이 증가하여, 2023년 6월 고용률이 63.5%로 6월 수치로는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이 양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양호한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림 2] 고용률, 실업률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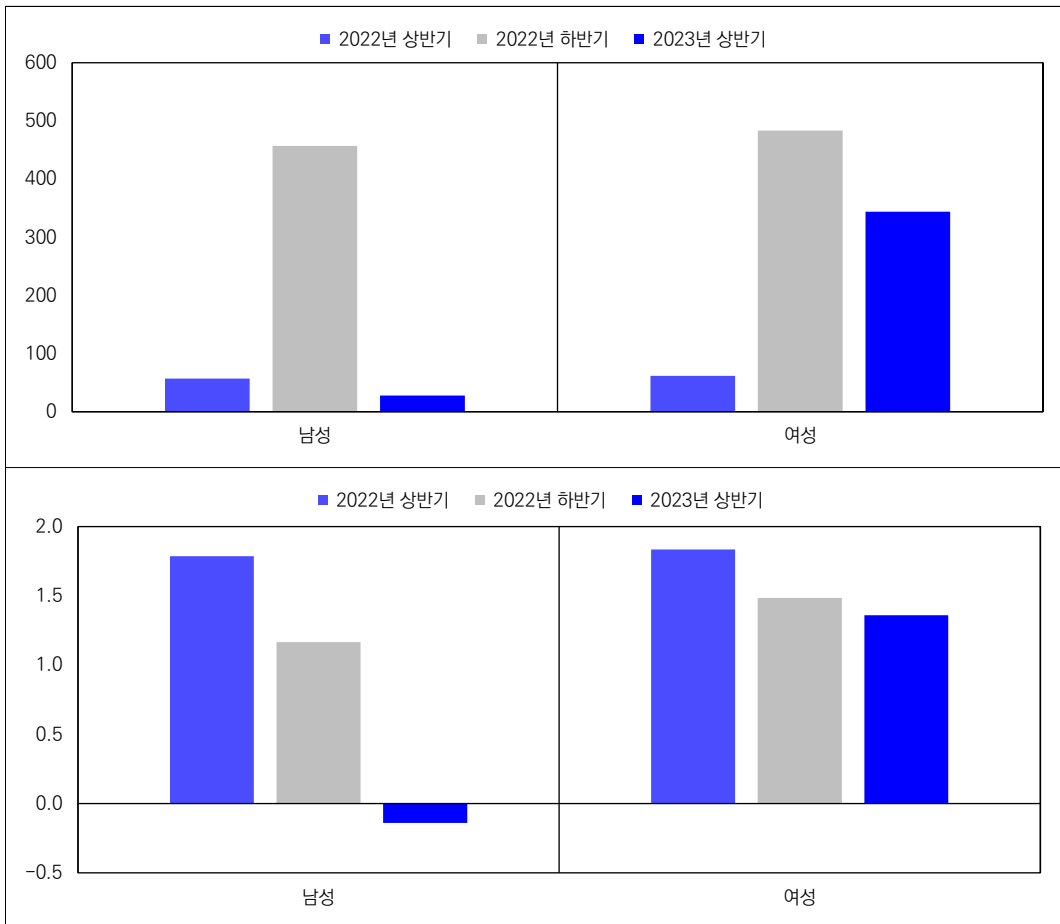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취업자 증가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2022년 하반기까지는 남성과 여성 취업자가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여성 위주로 증가했다. 남성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 중이다. 이러한 여성 고용의 증가는 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여성이 많이 분포한 산업·직업에서의 취업자 증가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이며, 후에 서술할 부문별 고용동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림 3] 성별 취업자(상), 고용률(하)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인구 변화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취업자 변동 규모는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연령대 인구가 모두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

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 연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상당 부분 취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표 2〉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도		상반기			분기		
		2021	2022	2021	2022	2023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15~29세	인 구	-141	-203	-135	-195	-182	-208	-187	-177
	취업자	115	119	36	208	-103	-3	-88	-118
	실업률	-1.2	-1.4	0.2	-2.7	-0.5	-0.1	0.0	-1.0
	고용률	2.0	2.4	1.1	3.4	-0.2	1.1	-0.1	-0.4
30대	인 구	-144	-124	-150	-133	-90	-110	-100	-81
	취업자	-107	46	-160	23	37	56	22	52
	실업률	-0.2	-0.6	0.3	-0.9	-0.1	-0.3	0.1	-0.3
	고용률	0.0	2.0	-0.7	1.8	1.6	2.0	1.4	1.7
40대	인 구	-70	-80	-71	-72	-110	-94	-104	-116
	취업자	-35	3	-78	22	-51	-25	-68	-35
	실업률	-0.1	-0.4	0.1	-0.5	-0.1	-0.2	0.0	-0.2
	고용률	0.2	0.8	-0.3	1.0	0.4	0.6	0.2	0.7
50대	인 구	-3	32	-13	35	4	20	12	-4
	취업자	66	196	-1	244	68	116	78	58
	실업률	-0.3	-0.9	-0.1	-1.2	-0.1	-0.5	-0.1	0.0
	고용률	0.8	2.0	0.1	2.5	0.8	1.2	0.8	0.8
60세 이상	인 구	653	555	665	574	519	532	526	513
	취업자	330	452	321	443	421	460	453	388
	실업률	0.2	-1.0	0.5	-1.2	-0.8	-0.7	-1.5	-0.1
	고용률	0.5	1.6	0.4	1.6	1.4	1.7	1.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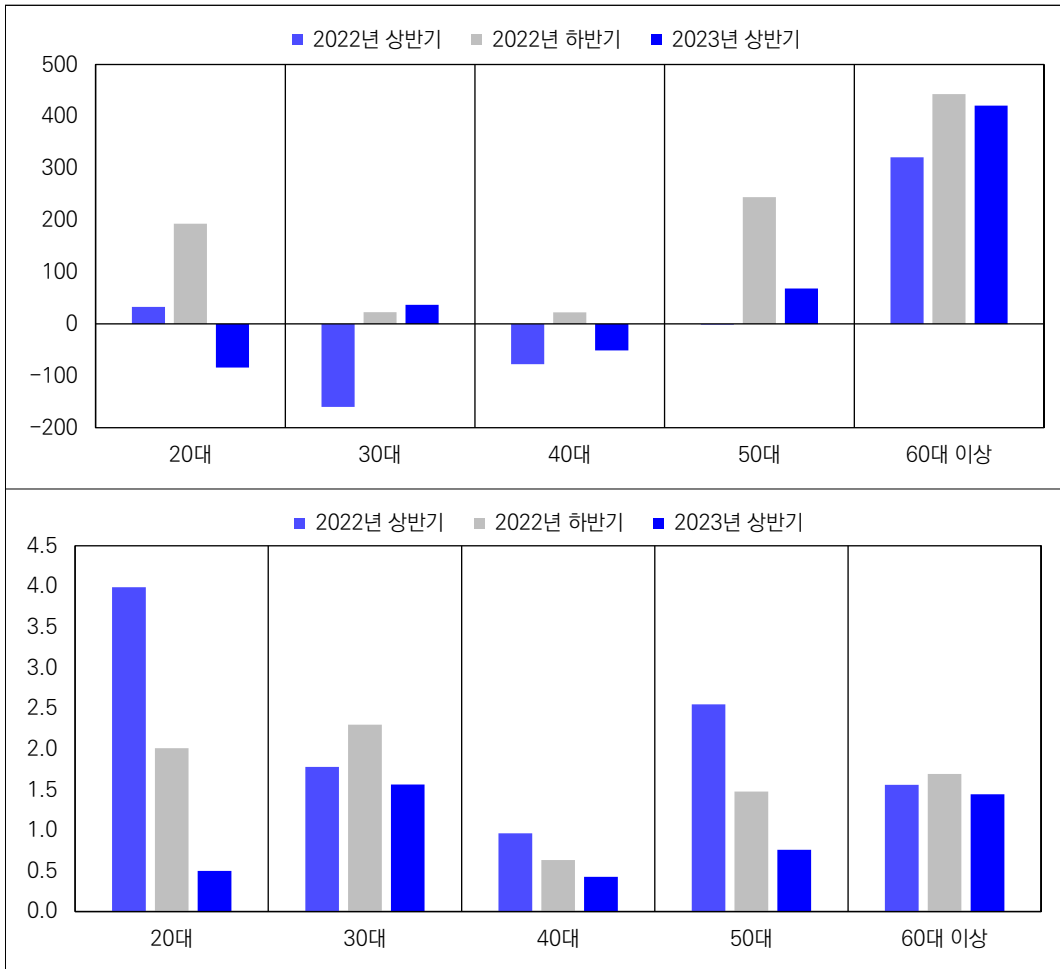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른 연령대는 인구가 감소 중이므로 총량적인 측면에서 고용상황을 파악할 때 고용률 변화를 먼저 살펴야 한다. 30대 고용률은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 중이며, 40대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핵심연령대 고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50대도 고용률 증가폭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중사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돌봄 수요 관련 산업 등에서 꾸준한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대 청년층 고용률 증가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나, 지난 2년 동안 청년고용이 양적 지표 측면에서 큰 회복세를 보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림 4] 연령별 취업자(상), 고용률(하)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조업 고용은 둔화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미국의 긴축기조 유지 등 세계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거시경제 여건이 업황에 반영되면서 제조업 생산에 위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우려했던 것만큼 감소하지 않았다. 건설경기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역시 좋지 못하다.

비대면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 증가세와 더불어 대면 서비스업 업황 개선이 고용에까지 충분히 반영되면서 서비스업 고용은 양호했다. 도소매를 제외한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상당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의 고용을 회복했다.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은 기존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대면 특수를 누렸던 소형 화물 배달업이 포함된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감소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업 고용도 좋지 않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등은 고용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되고 있고 돌봄 관련 수요도 꾸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산업 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다.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완만한 고용 둔화세 속에 양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노동시장 징후를 보여준다. 다만, 부문별로는 고용 변화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후의 장에서는 고용 상황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로 상세히 분석해 본다. 미취업자 동향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고용률 및 취업자 동향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하반기 및 연간 고용을 전망한다.

## II. 2023년 상반기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 1. 여성 위주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둔화된 실업률 감소세 유지

2023년 상반기 고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실업자 수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내 감소를 이어가며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실업자 수 수치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실업자는 859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분기별로 실업자는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존재했음에도 전년동기대비 1분기 72천 명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81천 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도 동 기간 감소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감소한 실업자는 취업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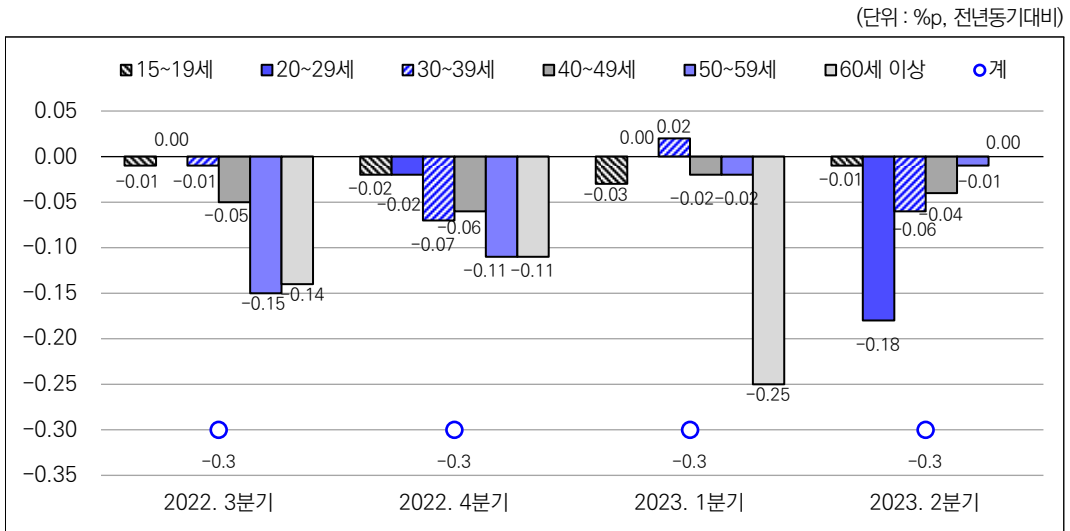
인구 변화를 고려한 실업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그림 5 참조). 2023년 상반기 실업률 감소는 연령별로 20대와 60세 이상이 주도하였는데, 두 집단의 실업률 변화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우선 20대 실업률은 1분기에 소폭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1분기 청년 실업률의 변화를 세부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20대 초반에서 실업률은 2022년 4분기 수준의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20대 후반에서는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대 초반의 경우 고용률은 1분기 들어

증가세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세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20대 초반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20대 후반의 경우는 1분기 실업률 증가세가 확대됐고 고용률은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이는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했고 일부는 경제활동에서 이탈했다는 것인데, 적어도 실업률의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20대 초반보다는 후반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실업률은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되었다. 20대 초반은 감소세가 오히려 확대됐고 20대 후반에서 감소로 전환됐다. 20대 초반의 경우 고용률도 감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분기는 1분기에 나타났던 경제활동 이탈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대 후반은 고용률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실업률 변동폭만큼은 아니어서 감소한 실업자의 일부는 취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여 20대 후반도 서서히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률은 상반기에 감소하였으나 이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힘들 것이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2023년 1분기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지만 2분기 들어 감소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매년 1분기에 나타나는 고령층 실업자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층에 의해 발생하는데, 2023년 1분기에는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임시적 일자리를 그만둔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해당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표 3 참조). 즉, 2023년 1분기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고령층 전반에서의 구직활동 감소와 더불어 이전에 노인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했었던 고령층에서도 작년만큼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에

[그림 5] 전체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대한 고령층의 관심이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노인일자리의 영향이 사라진 2분기에 들어서는 실업률 감소세가 둔화하여 실업률은 전년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고용률은 증가세가 축소되어 일자리 상실에 해당하는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한 고령층 비중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실업은 성별로 보면 여성 실업률 감소세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은 성별로 그 변화 양상이 다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던 여성 실업률은 최근 그 격차가 많이 축소되었다. 전년 상반기 대비 2023년 남성 실업률은 0.2%p 감소한 반면 여성은 0.5%p 감소하여 여성 실업률 감소세가 남성의 두 배 이상이었으며, 여성 실업률 수준은 2023년 1분기 3.5%로 남성보다 0.5%p 더 높았지만 6월은 그 차이가 0.1%p를 기록하여 최근 여성 실업률 수준은 남성 실업률에 거의 근접하였다.

여성 실업률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행태를 살펴본다. [그림 6]을 보면 여성 미취업자는 연령별로 변화행태에 차이가 있는데, 15~29세는 2023년 상반기 실업률의 감소세가 강화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22년부터 감소세가 둔화되다 2023년 증가로 돌아섰다. 15~29세 여성은 고용률도 감소로 돌아선 상황인 만큼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감소한 실업자도 구직활동에서 이탈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는 실업률의 감소세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가 4분기 기간 동안 매우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들은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으로 이행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실업률 증감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구직활동 1개월 이내에 고용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30대 여성의 취업이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23년 2분기 들어 실업률 감소세가 확대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감소세가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추세로 자리 잡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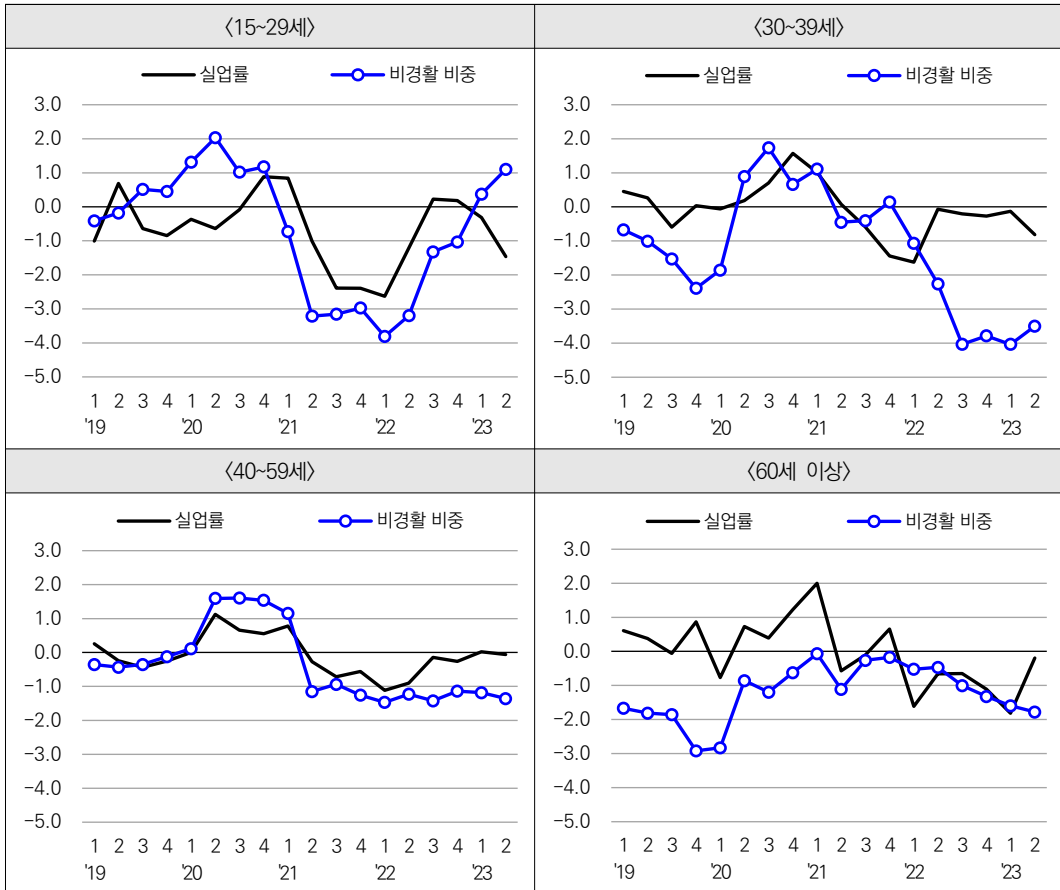
40~59세 여성은 30대와 유사하다. 2021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과 동반 감소하던 실업률은 2022년부터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2023년 상반기에는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세는 2021년 2분기부터 꾸준한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2022년 하반기부터 중년층 여성 역시 30대와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0세 이상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동반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됐었는데, 2023년 2분기에 실업률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점이 특징이다. 2분기 60세 이상 실업률 수준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60세 이상에서 실업률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여성 연령별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감

(단위: %p, 전년동기대비)



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각각의 여성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은 실직의 개념에서 비교적 최근에 일자리에서 유출된 인구를 살펴본다(표 3 참조). 지난 1년 내 일자리를 그만둔 미취업자는 2023년 상반기 30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는 전년대비 26천 명 감소한 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6천 명 증가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을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별로 구분하면, ‘작업 여건 불만족’ 등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미취업자가 상반기에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중 실업자의 경우는 1분기에 증가하고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됐지만,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상반기 내 증가하여 자발적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2분기 들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및 ‘직장의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은 2023년 상반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모두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수출 부진 등의 경기 영향이 대규모 실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업 사유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유형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실업자	취업 유경험(1년 미만)	175	-153	-172	-186	-309	-169	-66	-56	-28	-23	
	자발적	개인/가족 관련	-21	-7	-3	-1	-27	-42	-5	2	10	11
		작업 여건	-34	-38	-47	-36	-3	34	33	12	21	-12
	비자발적	직장 여건	95	-138	-120	-152	-189	-99	-73	-44	-13	-7
		임시직/일의 완료	134	32	-2	4	-88	-65	-18	-25	-46	-14
	기타	1	-2	-1	0	-1	3	-3	-1	-2	-1	
비경제활동인구	취업 유경험(1년 미만)	113	-357	-250	-348	-354	-250	-186	-31	88	24	
	자발적	개인/가족 관련	-161	-185	-56	-10	26	26	14	22	39	61
		작업 여건	-17	-49	-30	-18	2	10	35	31	32	25
	비자발적	직장 여건	218	-98	-153	-296	-305	-237	-205	-100	-57	-1
		임시직/일의 완료	74	-29	-8	-13	-77	-43	-28	13	72	-52
	기타	0	4	-4	-10	1	-6	-3	3	3	-9	

- 주 : 1) 개인/가족 관련 사유에는 개인, 가족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 연로가 포함됨.
- 2) 작업 여건 사유는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을 의미함.
- 3) 직장 여건 사유에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이 포함됨.
- 4) 임시직/일의 완료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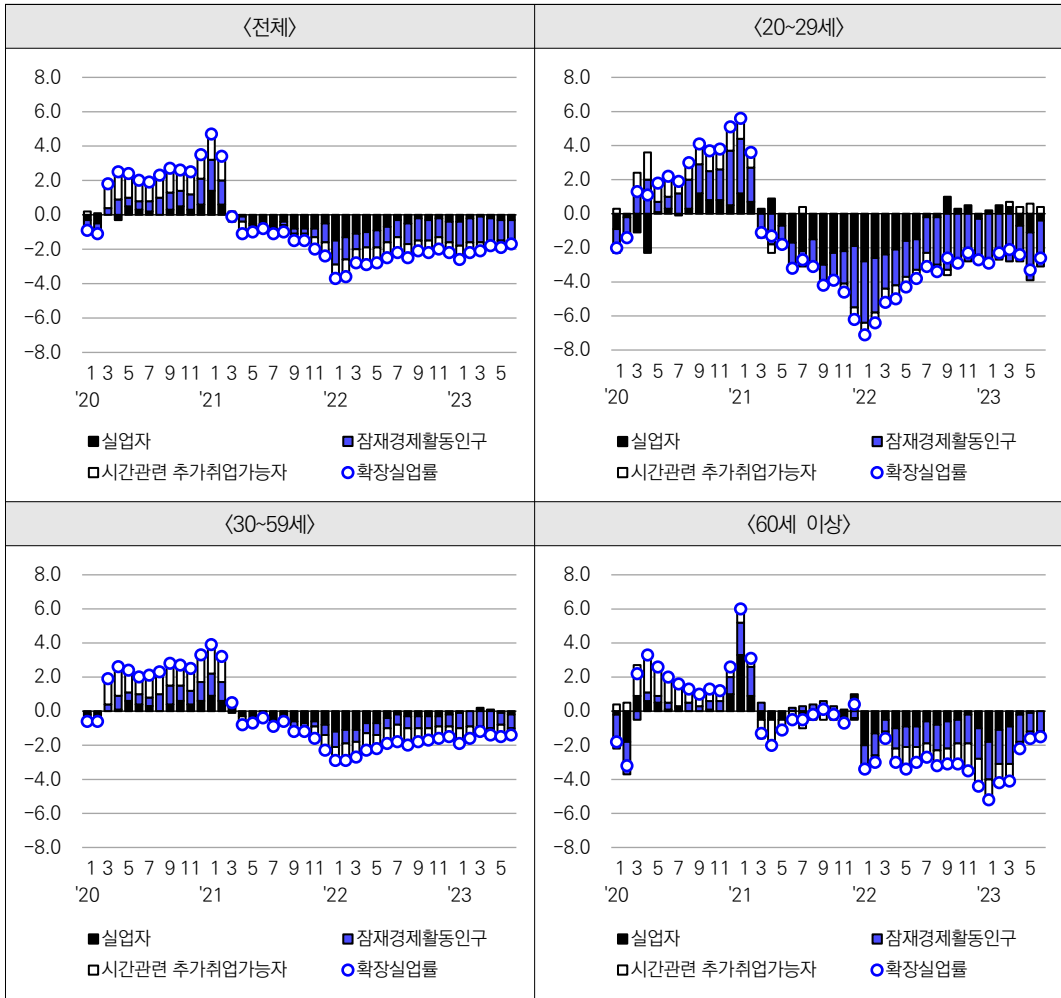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업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살펴보면(그림 7 참조), 2023년 상반기 확장실업률의 경우는 실업률 감소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여전히 2%p대의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전체 확장실업률의 감소를 구분하여 보면, 2022년부터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확장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실업률의 영향이 거의 사라지면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확장실업률 감소를 견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연령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큰 추세적 흐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분리 가능한데, 잠재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주로 잠재구직자의 감소에 기인한다.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로 취업 욕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한다. 이들은 상반기 405천 명 감소하였고 여기에 감소한 실업자를 더하면 상반기에는 총 482천 명의 취업 욕구가 있는 미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반면 취업자의 증

[그림 7] 연령대별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와 각 구성 요인의 변동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1)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를 합한 것을 의미함.

2) 15~19세는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20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림에서는 제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는 372천 명이다. 즉, 취업 욕구가 있는 미취업자 중 상당수는 취업으로 이동하였지만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취업이 가능하지 못한 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반기 확장실업률이 2.1%p의 감소를 이어가며 호조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노동시장은 점차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잠재구직자의 감소와 이동을 연령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특히 20대에서 구직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비중으로 따지면 30세 이상

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23년 상반기의 전년대비 취업자 비중은 증가 추세였고, 반대로 실업자 비중은 감소했거나 변화가 없었으며,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에 20대는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했고 잠재구직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그 외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역시 증가세를 키워가는 모습이였다. 즉, 20대의 경우 잠재구직자 및 실업자의 일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어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앞으로 20대에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20대 청년층에서는 2023년 상반기 들어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증가하였다가 2021년부터 줄곧 감소를 이어왔지만 2023년 3월 다시 증가로 돌아선 후 2분기 내 증가하고 있다. 20대 취업자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청년층 불안전 취업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세부항목을 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성별로 변화양상이 다르다. 전체를 우선 살펴보면 전년대비 2023년 상반기에 비경제활동인구는 154천 명 감소하여 450천 명 감소했던 2022년 하반기보다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성별로 남성에서 81천 명 증가하여 증가로 전환됐지만 여성은 235천 명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성별에 따른 변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사유별로 육아·가사 및 통학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쉬었음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통학 및 쉬었음에서 증가하였지만 육아·가사, 취업준비 및 연로에서는 감소하였다.

사유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표 4 참조), 우선 남성 육아·가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잦아든 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였는데, 주로 4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여성 육아·가사 인구는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주로 육아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가사는 2022년 상반기 이후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어 2023년 상반기 가사 인구는 전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통학은 청년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장기간 감소하였었는데,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통학 인구가 2023년 상반기에는 15~19세를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되었다. 취업준비와 연로 역시 남녀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취업준비는 2022년 감소로 전환된 이후 2023년 상반기에도 98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반대로 연로의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증가하였지만 2022년 4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후 2023년 상반기에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쉬었음의 증가이다. 쉬었음은 2021년 2분기부터 줄곧 전년동기대비 감소를 이어오다가 2023년 1분기 105천 명 증가하며 증가로 전환되었고, 2분기에는 16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 축소를 주도하였다. 쉬었음 인구는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쉬었음의 증가세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증가폭이 여성의 2배 이상이다. 이는 2023년 고용 회복이 여성 고용 친화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남성 고용률은 정체된 반면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쉬었음은 취업 경험 유무별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인구에서 상반기 29천 명 증가했고,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경우는 96천 명 증가하였으며, 1년 이상인 경우는 9천 명 감소하였다. 따라서 증가하는 쉬었음 인구의 대다수는 비교적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표 4〉 비경제활동인구 성별·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사유	전체				남성				여성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전체	-527	-373	-178	-130	-247	-108	61	101	-280	-265	-238	-231
육아·가사	-194	-160	-145	-155	6	-3	21	27	-200	-158	-167	-182
통학	-110	-34	42	74	-70	-13	36	45	-40	-21	6	29
취업준비	-98	-67	-107	-90	-68	-31	-60	-38	-29	-36	-47	-52
연로	80	-28	-95	-129	21	-10	-17	-55	59	-18	-78	-74
쉬었음	-148	-43	105	163	-112	-21	67	120	-36	-22	39	43
기타	-59	-41	23	7	-24	-31	14	2	-35	-10	8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던,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쉬었음 인구는 상반기 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떠나서 쉬었음에 더 많이 유입되었다. 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떠나 쉬었음 상태에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1분기 64천 명, 2분기 61천 명 증가하여 상반기 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자발적 사유로 쉬었음에 유입된 인구는 1분기 44천 명에서 2분기 22천 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쉬었음 인구는 자발적 실직자에서 두 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비자발적 쉬었음은 2022년 감소에서 2023년 상반기 증가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 이들의 증감 변화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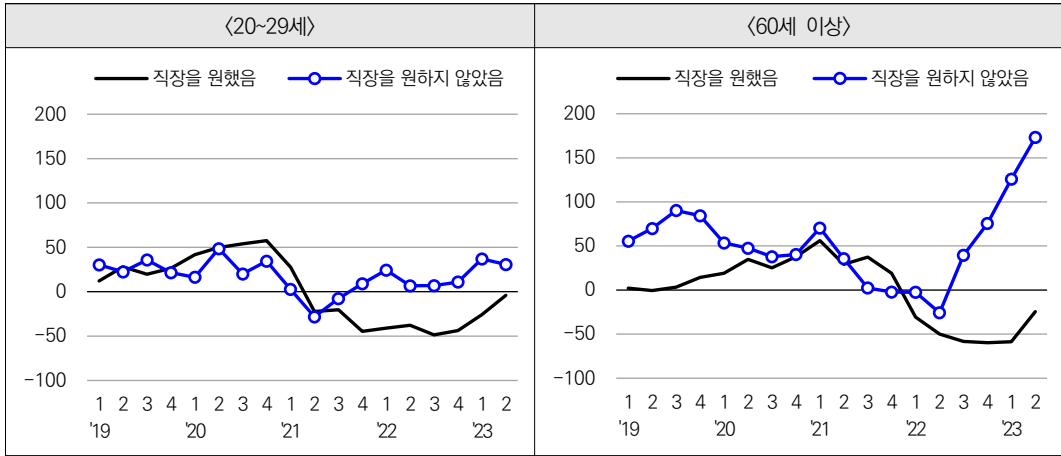
쉬었음의 증가는 연령별로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주로 나타났다. 20대는 2023년 1분기 12천 명, 2분기 28천 명 증가하여 최근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그림 8]의 왼쪽에서 2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주에 직장을 원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보면 직장을 원하지 않았던 인구에서 상반기 34천 명 증가하였으며 직장을 원했던 인구는 1분기 26천 명 감소, 2분기 4천 명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되어 2분기 들어 전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또한 청년 쉬었음은 구직단념 여부로 구분하면 주로 비구직단념자에서 증가하였다. 따라서 상반기에 늘어난 청년 쉬었음 인구는 구직을 포기해서 쉬었다기보다는 선택에 의해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주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직장을 원했지만 쉬고 있는 청년층의 수가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이에 대해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60세 이상 쉬었음은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어 1분기 63천 명 증가에서 2분기에는 152천 명까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그림 8 오른쪽). 60세 이상 역시 청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난주 직장을 원하지 않아 선택적으로 쉬었던 인구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에서는 그 경향이 20대보다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60세 이상에서 연로 사유 비경제활동인구가 쉬었음과 거의 반대하는 추세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그림 9 참조). 즉, 증가하는 고령층

[그림 8] 지난주 직장을 원했는지 여부별 20대 및 60세 이상 쉬었음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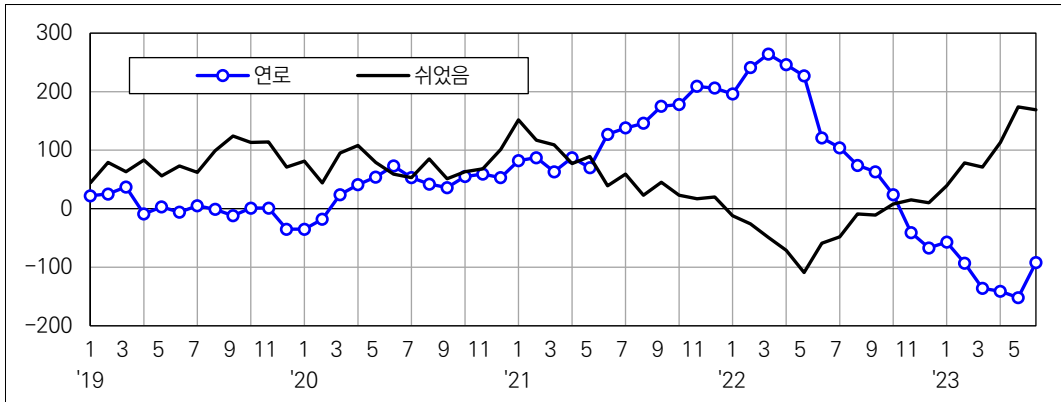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60세 이상 연로 및 쉬었음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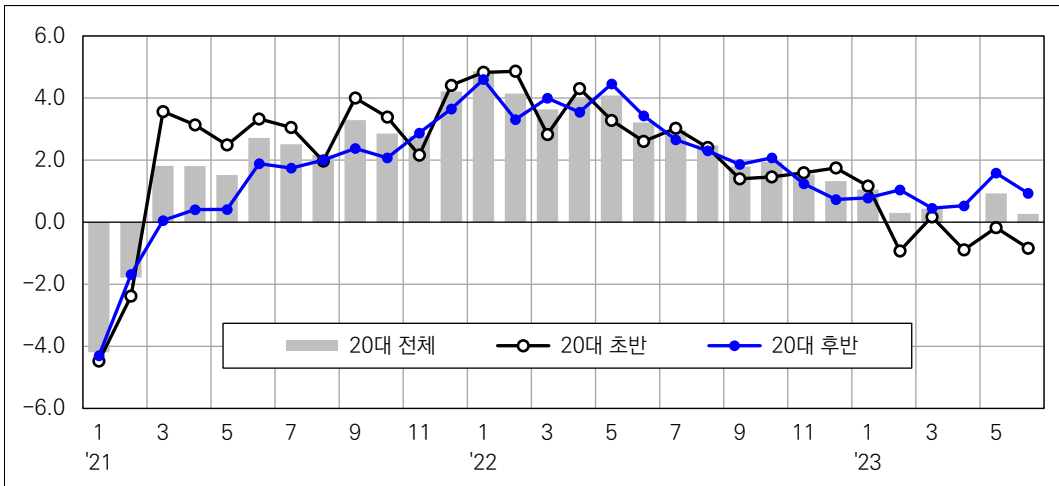
쉬었음 인구의 일부는 연로 사유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증가하는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 2. 청년층 고용 둔화, 60대 이상 고령층 위주 고용 증가

20대를 위주로 청년층 고용을 살펴본다. 20대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에서 2021년 3분기 부터 감소 중이며, 현재는 감소분이 20만 명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2분기 이후 취업자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해 왔다. 2022년 상반기 이후로는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어 현재 취업자 감소 중이다. 전체 고용률이 아직까지는 감소하지 않았다. 고용률로 판단했을 때, 20대 초반 고용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20대 초반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산업 업황이 점차 둔화되는 영향, 즉 경기적 영향의 고용 변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림 10] 20대 세부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은 나이대별로 최종학력 졸업 여부, 종사 산업 분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연령을 구분해서 산업별로 취업자 변화를 살펴본다. 도소매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있기 전부터 취업자가 감소하던 산업이다. 더 이상 오프라인 소비가 대세가 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이 산업 고용이 감소한다. 청년층 역시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비대면 특수가 사라진 운수창고업, 산업 생산 침체

가 나타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2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간호 인력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최근 취업자 감소가 이어진다. 대면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는 20대 전체에서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나타났다.

〈표 5〉 20대 인구의 세부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4세				25~29세			
	2023 상반기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상반기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전 체	-55	-4	-43	-68	-29	5	-31	-26
농림어업	-4	-2	-5	-4	-8	-12	-7	-9
제조업	7	11	12	2	-34	-26	-46	-21
건설업	-2	-4	-4	1	5	-6	6	4
도소매업	-29	-10	-22	-36	-62	-31	-49	-75
운수창고업	-9	1	-7	-11	-25	-22	-34	-15
숙박음식업	37	67	47	28	35	52	49	22
정보통신업	-11	-9	-15	-7	3	-18	-2	8
금융보험업	-15	-11	-14	-17	4	-6	3	4
부동산업	-1	-3	0	-1	1	-3	3	-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	-13	-16	-12	20	9	15	25
사업시설관리지원업	1	6	3	-2	-8	-11	-9	-7
공공행정	-9	-8	-9	-10	6	15	8	5
교육서비스	2	-16	-11	15	6	22	10	1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4	0	-11	-18	10	42	26	-5
예술·스포츠	12	-1	13	10	13	-4	-2	28
협회·개인서비스	0	-7	1	-1	8	7	4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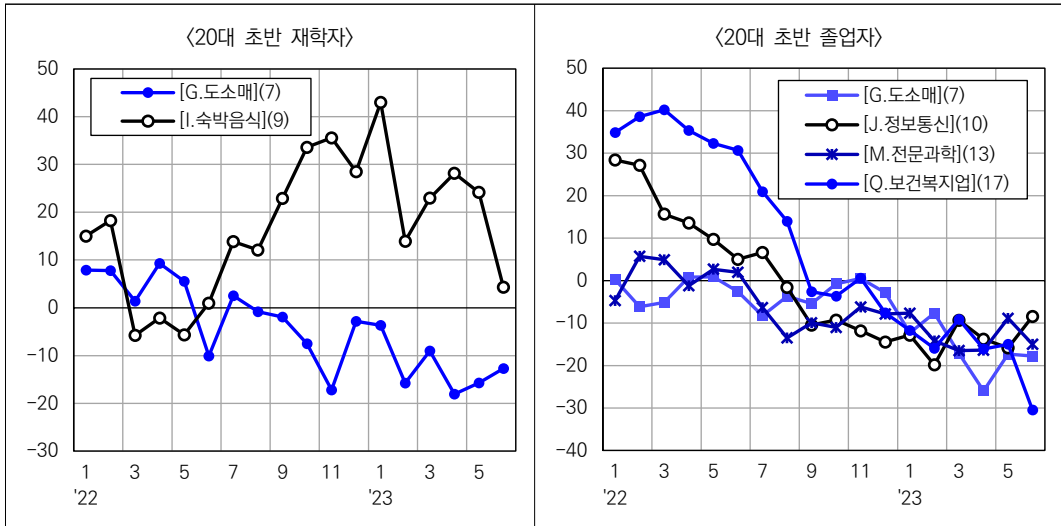
20대 초반 취업자 중에는 재학 중 일자리 경험(아르바이트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 중 어떤 집단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학자와 졸업자를 구분하여 취업자 변화를 살펴본다. 20대 초반 청년층 재학자는 임시직 내수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다. 이들 산업의 전체 고용동향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다. 숙박음식점 취업자 증가가 2023년 초 정점에 달한 후 둔화세이다. 졸업생의 경우 여성 고용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간호 인력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가 컸다. 그 기저로 인해 해당 산업의 2023년 상반기 고용이 감소 중이다. 20대 초반 숙박음식점 취업자 둔화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취업자 규모 감소, 20대 후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는 작년 기저효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현상 모두 특별히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된 문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림 11] 20대 초반(20~24세) 재학자(좌), 졸업자(우)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수확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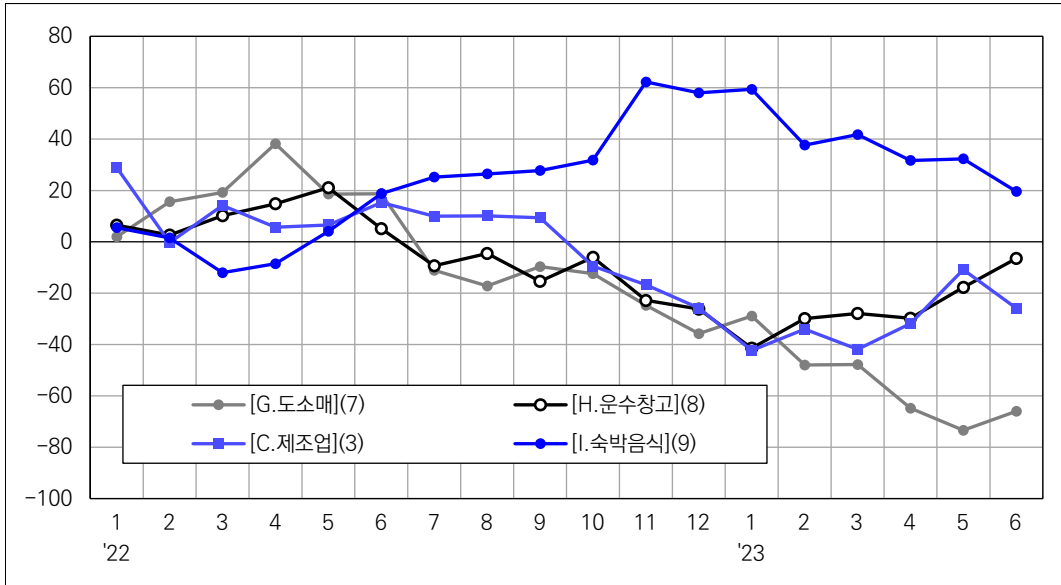
20대 후반의 경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대 후반 졸업자의 산업별 고용 감소도 특별히 이 연령대 문제라기보다는 산업 전체의 고용이 침체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제조업 업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 영향이 20대 후반 졸업자인 남성 제조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도소매나 운수창고 취업자 감소도 업황이 전체 연령대 고용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숙박음식점 고용증가는 재학자 위주였지만, 산업 전체 회복세가 충분히 관찰되면서 졸업자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정 학력대에서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지 판별하기 위해 최종학력 졸업자를 기준으로 고용지표를 살펴본다. 청년층 고용 둔화가 고졸 이하 학력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초대졸, 대졸 이상 졸업자의 고용률은 2023년 1분기까지 감소하다가 2분기에 증가로 전환한 반면,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률은 반대로 1분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됐다. 고졸 이하 청년

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되어 있는 산업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가 2분기에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20대 후반 고졸 이하 졸업자 고용이 둔화됐다.

[그림 12] 20대 후반(25~29세) 졸업자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수확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20대 후반 졸업자 학력별 고용률 수준 및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수준				증감			
	전체 졸업자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전체 졸업자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022 4분기	76.9	73.4	78.9	78.9	1.8	<b>6.6</b>	-2.1	-2.1
2023 1분기	76.4	73.2	79.7	79.7	1.1	<b>4.9</b>	-1.3	-1.3
2023 2분기	77.4	73.2	81.5	81.5	1.0	<b>-0.2</b>	1.1	1.1

주: 수확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 고용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연령대에서 만 관찰되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산업 전반의 생산과 고용 등락의 영향하에서 청년 고용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산업에 청년 고용 비중이 높다보니 자연스

럽게 해당 산업 청년 취업자의 조정이 발생했다. 반대로 청년 고용이 증가세에 있을 때는, 현재 침체 중인 산업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청년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산업 경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고용 등락이라 평가할 수 있다.

〈표 7〉 20대 후반 고졸 이하 졸업자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준 및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수준			증감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전 체	494	486	470	36	10	-33
제조업	121	121	115	17	7	-5
도소매업	70	59	50	3	-16	-33
운수창고업	24	22	27	-10	-16	-9
숙박음식업	77	82	71	17	21	7

주 : 수확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는 여성 고용의 변화가 주요 특징이다. 인구가 10만 명대로 감소 중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감으로 이 연령대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고용률 증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30대 여성의 고용률 신장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 증가폭이 4%p 이상 크게 나타나면서, 이 연령대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혼인여부로 인해 크게 달라진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혼인여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고용률 변화를 살펴본다. 기혼여성, 미혼여성 모두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미혼여성에서 더 컸다. 특히 30대 후반 미혼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30대 후반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82.4%로 전년동월대비 6.7%p 증가했다. 30대 초반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85% 수준임을 감안하면, 30대 후반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30대 초반 여성만큼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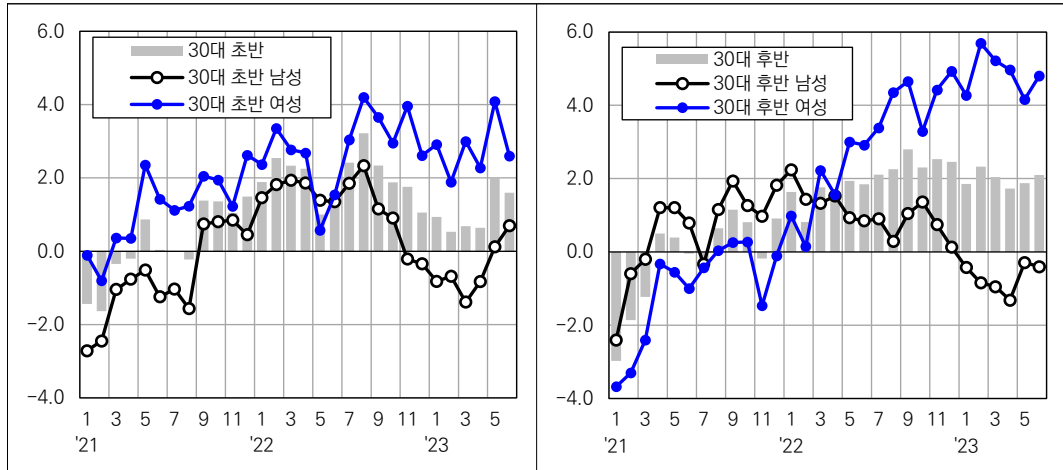
30대 남성 고용은 여성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다. 고용률이 상반기 다소 감소했다. 산업별 30대 남성 취업자 변화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증가했으나 30대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고용이 30대 여성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0대 고용이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

기 힘들지만, 여성 고용이 활발한 데 비해 남성 고용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이 우려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30대 후반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30대 여성 전반의 고용에 활력을 불어넣은 데 반해서, 남성 고용은 남성이 다수 분포한 산업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이다.

[그림 13] 30대 초반(30~34세, 좌), 후반(35~39세, 우) 연령대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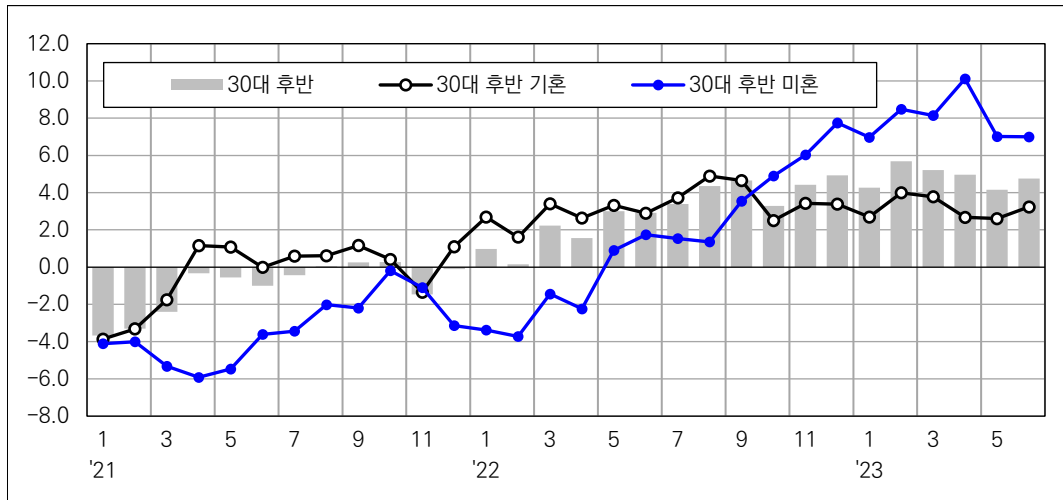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4] 30대 후반(35~39세) 여성 혼인여부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혼인상태 변수 답변 중 '미혼', '사별', '이혼'을 미혼으로, '유배우'를 기혼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8〉 30대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30대 남성				30대 여성			
	2023 상반기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상반기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전 체	-63	-35	-77	-48	99	91	98	100
농림어업	-14	-10	-18	-10	-1	5	2	-3
제조업	-62	-2	<b>-68</b>	<b>-57</b>	34	<b>30</b>	<b>37</b>	<b>32</b>
건설업	-23	-2	<b>-25</b>	<b>-22</b>	0	3	1	-1
도소매업	10	-26	11	9	-3	-9	-2	-4
운수창고업	1	7	10	-8	2	2	6	-1
숙박음식업	38	17	<b>37</b>	<b>38</b>	18	6	<b>15</b>	<b>20</b>
정보통신업	-1	-11	0	-1	19	<b>34</b>	<b>20</b>	<b>19</b>
금융보험업	-13	-8	-15	-10	-3	-16	-12	5
부동산업	-4	-5	-8	-1	-5	-2	-7	-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5	14	2	7	-7	-7	-18	5
사업시설관리지원업	-1	-20	-6	4	-3	2	-2	-3
공공행정	4	9	3	5	15	<b>33</b>	<b>23</b>	6
교육서비스	-18	-27	<b>-21</b>	<b>-16</b>	-5	-4	-7	-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	-8	-2	14	24	<b>24</b>	<b>31</b>	<b>16</b>
예술·스포츠	2	8	4	0	6	-2	2	11
협회·개인서비스	9	24	19	-1	11	-2	14	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가 인구감소 증임에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40대는 인구 감소 영향을 넘지 못하고 취업자가 감소했다. 다만, 고용률은 소폭 증가 중이므로 청년층에 비해서는 고용 둔화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 40대 후반 연령대의 인구 감소폭이 큰데, 40대 초반 인구 변화 추세를 볼 때 2023년 내 감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취업자 감소폭 자체는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남성 취업자 감소폭이 여성 취업자 감소폭보다 크다. 어느 한 분야에서 감소하고 있기보다는, 40대 남성이 다수 분포한 산업에서 전반적인 취업자 감소가 있었다. 제조업, 도소매업, 그 밖에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진다. 반면, 여성의 경우 40대 초반 연령대에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지속된다면, 30대, 40대에서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앞으로도 이 연령대에서는 인구변화를 감안하여, 고용률 변화로써 상황을 파악하고 부문별 취업자 증감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표 9〉 40대 인구의 주요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40~44세				45~4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2 상반기	2023 상반기	2022 상반기	2023 상반기	2022 상반기	2023 상반기	2022 상반기	2023 상반기
전 체	52	12	69	30	-42	-66	-56	-27
제조업	11	-2	-3	-1	-4	-5	-7	-11
건설업	7	-14	3	-2	-20	-20	10	-1
도소매업	24	-15	18	5	-19	-16	-24	-9
운수창고업	-4	22	0	-1	24	-4	0	-3
숙박음식업	7	-6	17	7	4	17	-8	14
정보통신업	-9	6	6	10	16	3	-2	3
금융보험업	-5	18	-8	3	-8	-10	-12	0
사업시설관리지원업	10	-21	-3	5	17	-1	10	-15
공공행정	8	3	5	-9	-12	-10	-4	-4
보건사회복지서비스	9	2	9	12	-4	5	-1	-10
예술·스포츠	3	2	3	-5	1	-15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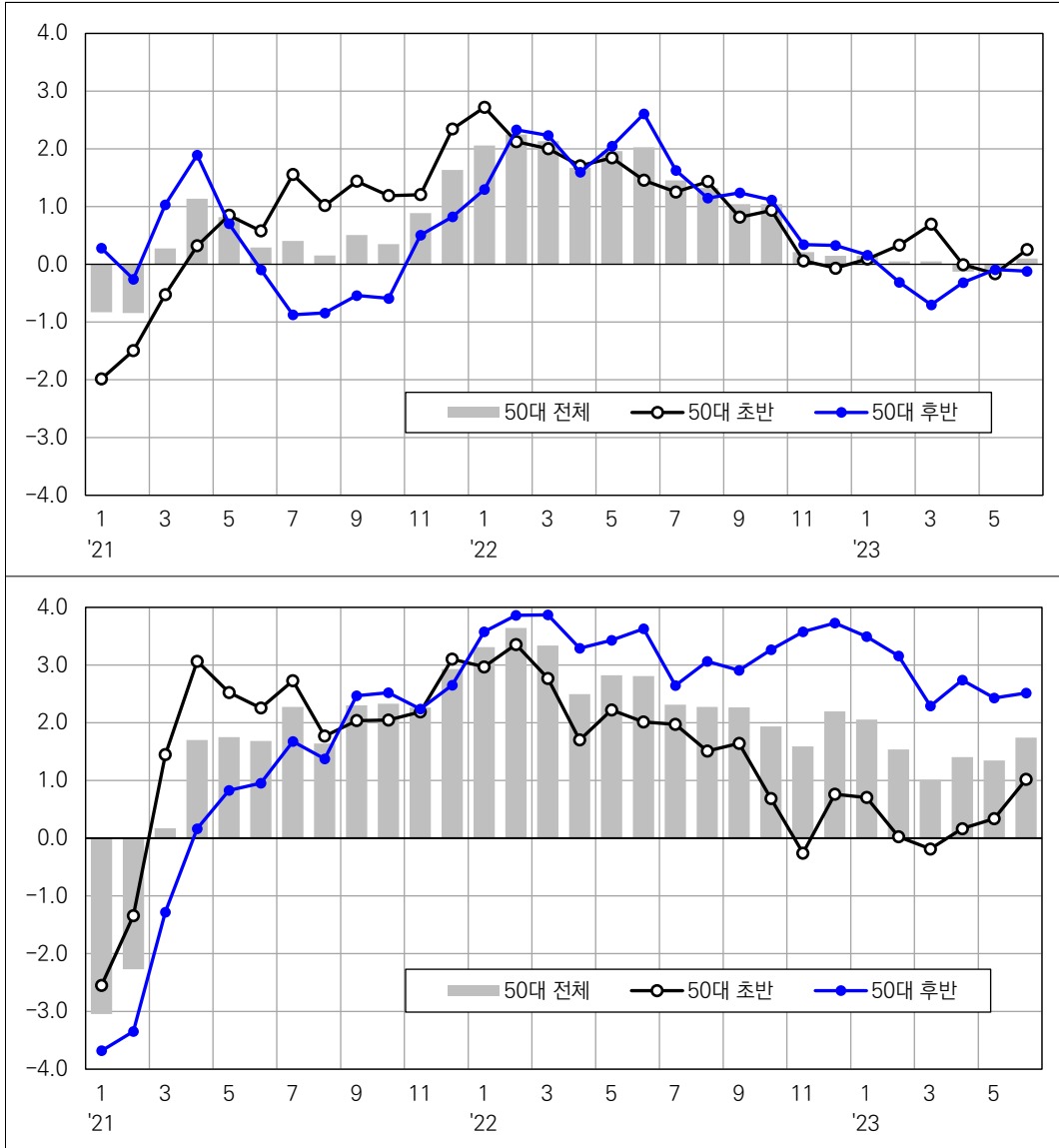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0대도 30대와 같이 성별 고용 상황이 상이하다. 고용률 변화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고용 상황이 확연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2분기 이후 50대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 중이며, 50대 초반 여성 고용률 증가폭이 2022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데 비해 50대 후반 여성 고용률 증가폭은 2023년 2분기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50대 후반 여성의 고용 변화 특징이 점차 60대 이상 고령층 여성 고용 변화 특징과 동행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성별·산업별로 취업자 변화를 구분하여 보면 알 수 있다. 돌봄 관련 고용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통내수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양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 여성 고용 변화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인구증가라는 구조적 변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취업자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다. 다만, 취업자 증가 중 일자리사업 관련 고용 비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고 있다. 65세 이상 공공행정, 보건복지 관련 임시직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농림어업, 감시단속·청소관련 고령층 임시직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고령층 종사 비중이 높은 전통내수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증가했다. 65세 이상 임시직 취업자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 비중은 43.1%로 전년동기대비 2.2%p 감소한 반면, 사업시설관리

[그림 15] 50대 남성(상), 여성(하) 세부연령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원 서비스업은 1.5%p, 숙박음식점업은 0.8%p 늘었다. 일자리사업 관련 고용 증가분이 줄어든 자리를 민간부분 고령층 고용 증가가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에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산업으로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고령층 고용의 증가폭 규모가 전체 고용 증가폭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표 10〉 50대 인구의 주요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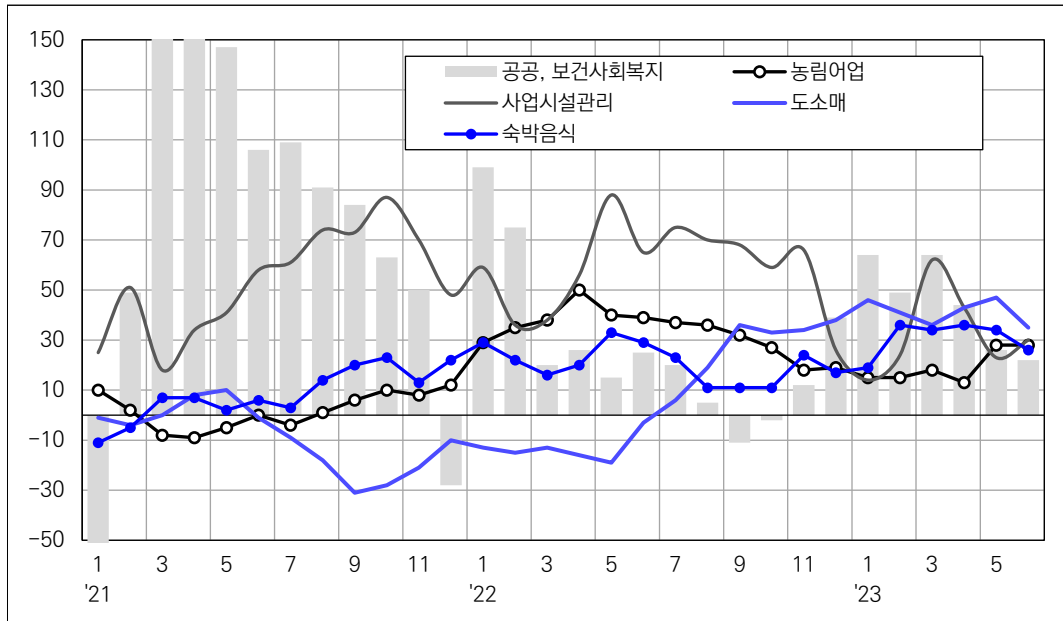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50대 남성				50대 여성			
	2023 상반기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2023 상반기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전 체	1	27	8	-6	67	90	70	65
제조업	5	35	8	2	-32	-11	-26	-38
건설업	-1	15	11	-13	15	1	13	18
도소매업	-16	-18	-21	-11	39	19	27	50
운수창고업	-21	-32	-24	-18	-5	1	-8	-3
숙박음식업	2	8	-4	7	-22	-18	-21	-23
부동산업	-13	-8	-13	-12	-1	-3	-4	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3	11	16	10	15	3	14	15
사업시설관리지원업	12	6	18	7	4	2	2	6
공공행정	-9	15	-3	-15	3	4	5	1
교육서비스	-9	-6	-10	-8	3	36	12	-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2	3	12	11	48	57	47	4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6〉 65세 이상 주요 산업별 임시직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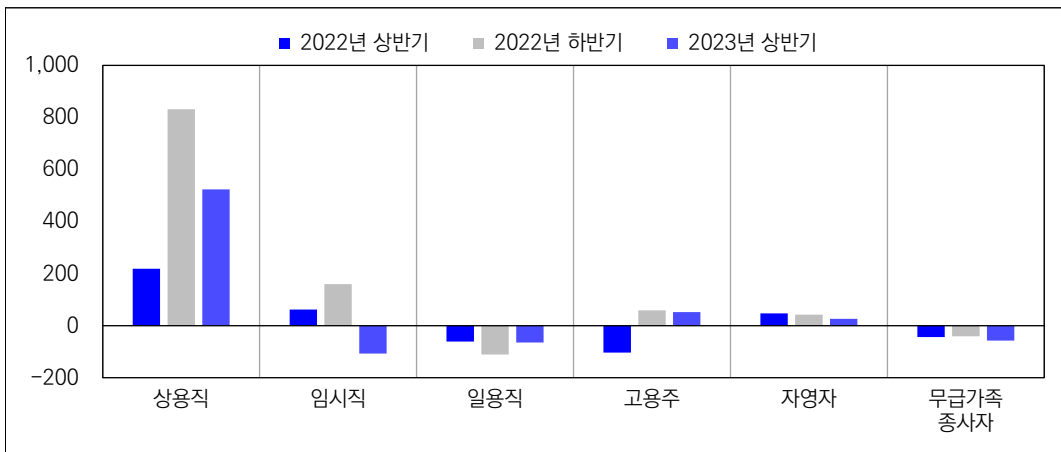


### 3. 상용직 위주의 고용 증가

취업자 증가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 고용 변동폭의 대부분이 상용직임을 알 수 있다. 상용직 변동폭에 비하면 다른 종사상지위 취업자의 변화분은 매우 작다. 상반기에 상용직이 52만 명 이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고용을 뛰어넘어 의미 있는 고용의 신장을 보이는 종사상지위는 상용직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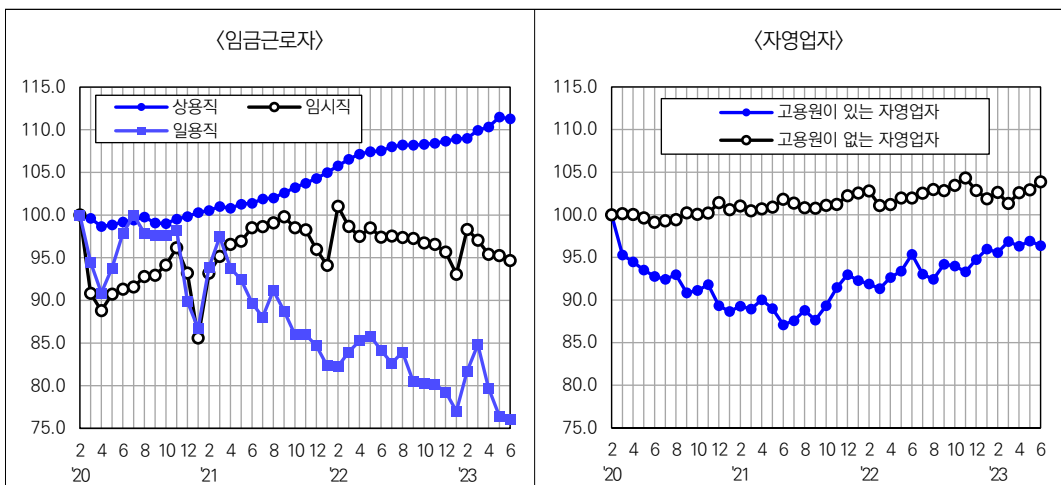
[그림 17]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8]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화(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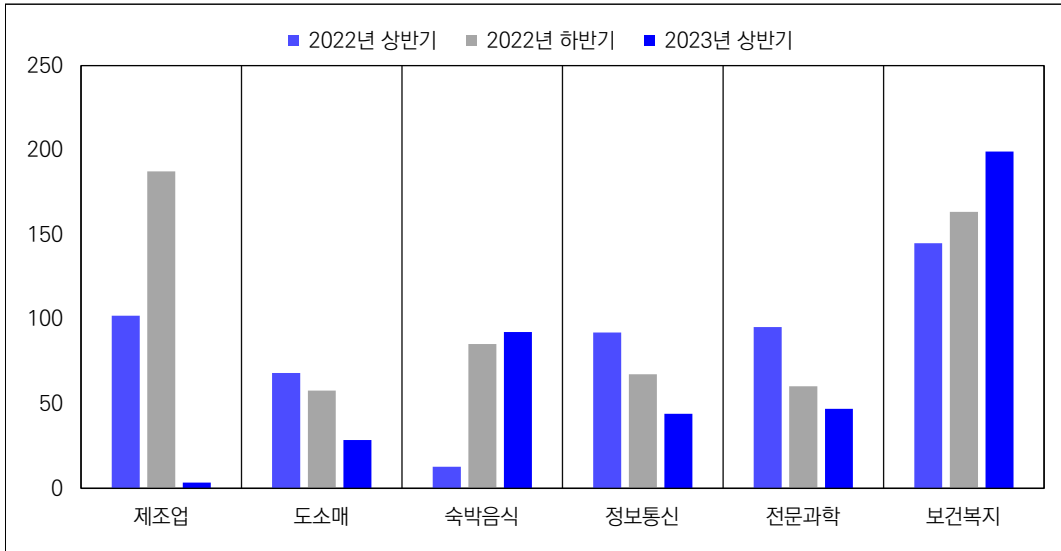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상용직 취업자 증가를 산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제조업 상용직 증가가 둔화됐지만 돌봄 관련 일자리 수요 증가와 연관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이 크게 늘었다. 도소매업에서는 다른 종사상지위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상용직은 증가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에서는 기존 비대면서비스업 상용직 증가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 업황 회복에 상용직이 가장 크게 반응해서 상반기에 약 10만 명가량 상용직이 증가했다.

[그림 19] 상용직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시직은 2022년 3분기에 감소로 전환된 이후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임시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폭 둔화 영향이 가장 컸다.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임시직 종사자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202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들의 임시직은 증가 중이다. 기존에 임시직이 감소하던 도소매업, 업황이 좋지 않은 제조업, 건설업, 비대면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운수업 등에서 임시직 감소세가 이어진다. 일용직은 종사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감소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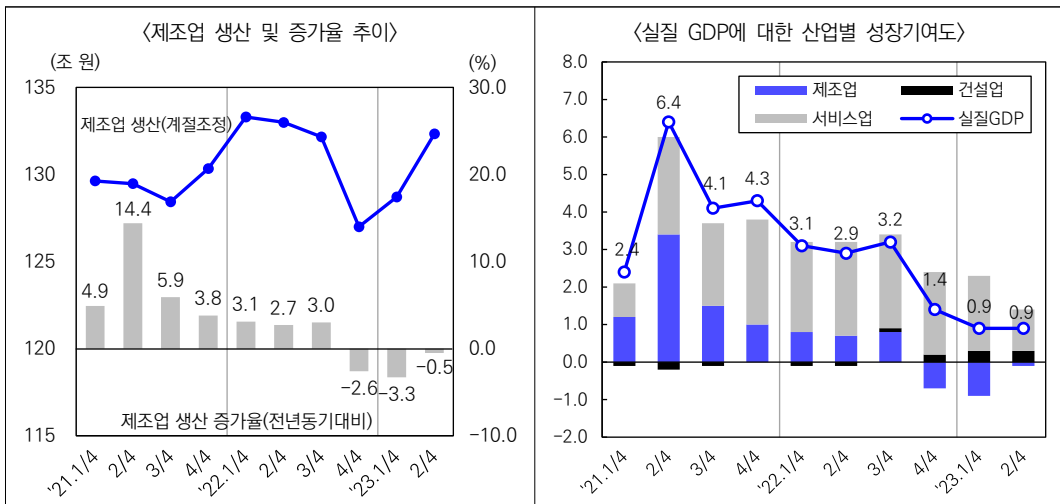
2022년 1분기 이후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증가 중이다. 다만, 그 규모가 상용직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고용 신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고령층 농림어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다.

#### 4. 제조업 고용 증가세 둔화

2023년 상반기 제조업 경기는 부진이 지속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2022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분기에 3.3%, 2분기 0.5% 감소하여 3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1분기 중에는 생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1분기 기준 11.3% 감소)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 부진이 나타났다. 2분기 들어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부진했던 흐름이 완화되면서 제조업 전체도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2023년 상반기는 수출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월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3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3%(금액 기준) 감소하였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해외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ICT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었다. 자동차(2023년 상반기 46.5% 증가), 이차전지(2023년 상반기 6.4% 증가) 등 호조세를 보인 품목도 있었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37.4%로 큰 폭 감소하였다.

[그림 20] 제조업 생산 및 증가율 추이(좌), 산업별 성장기여도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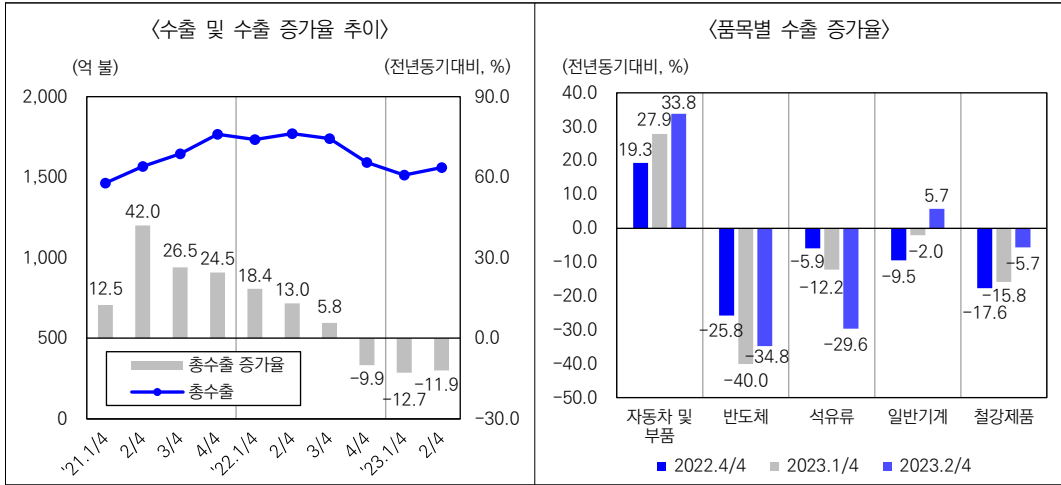


주: 실질 GDP 금액(원계열) 기준이며, 23년 2분기는 속보치 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경영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아도, 상반기 중 제조업의 업황실적 BSI가 큰 폭 하락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후 조사 시점에 해당 기업체의 업황을 파악하는 업황실적 BSI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평균 86, 76이었던 업황 BSI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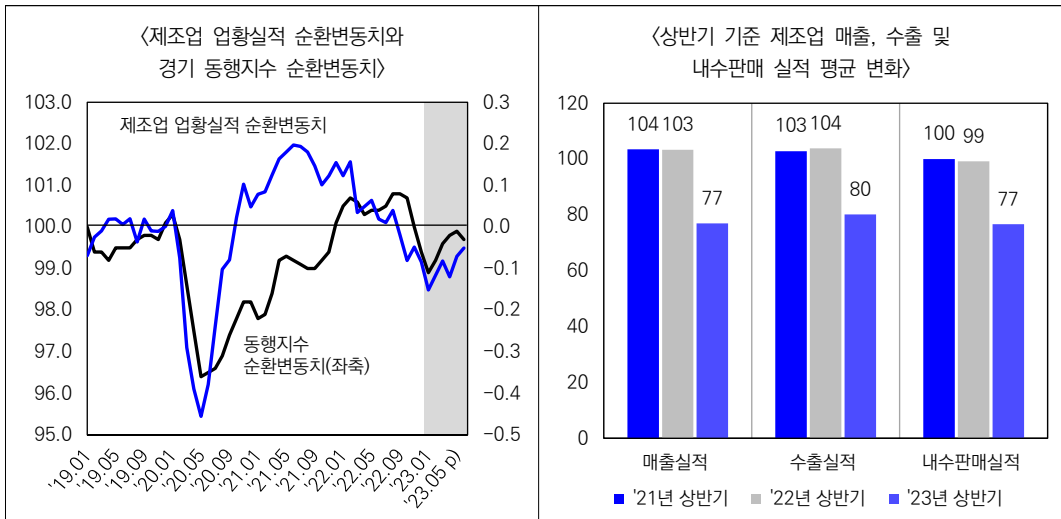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에 7p 하락한 69 수준이다.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업황 BSI 장기평균은 79 정도로, 올해 상반기는 장기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계절이나 추세적 성장과 같이 경기외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경기에 따른 변동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를 보면(그림 22의 왼쪽) 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지난해 4분기 이후로 장기 추세에 못

[그림 21] 수출 및 수출 증가율 추이(좌), 품목별 수출 증가율(우)



주 : 총수출 및 품목별 수출은 월별 자료를 합산하여 분기자료로 변환한 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보도자료.

[그림 22]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주 : 제조업 업황실적 순환변동치(우축)는 제조업 업황실적(계절조정)을 HP필터를 이용해 추세를 제거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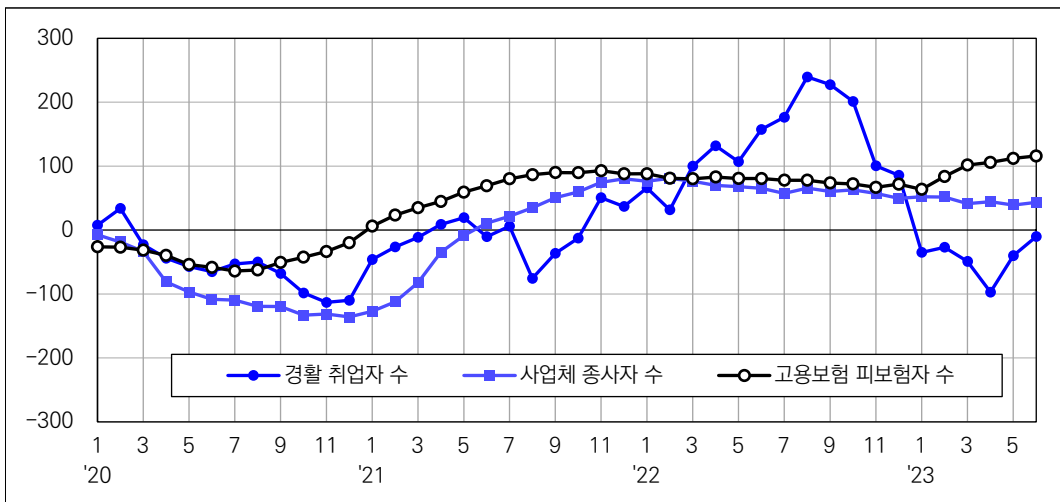
미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출규모(수출, 내수판매)도 전년동월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그 외 생산실적, 가동률실적, 신규수주 실적 등 대부분 지표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하였다.

상반기 제조업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제조업 고용이 전년에 비해 부진한 흐름이었음이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9만 9천 명, 하반기에 17만 2천 명 증가했었으나, 2023년 상반기에 감소로 전환되어 4만 3천 명 감소하였다. 2022년에 약 6만 6천 명 증가했던 사업체 종사자 수도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며 올해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4만 5천 명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매월 증가폭이 확대되어 온 모습이다. 그러나 피보험자 증가폭 확대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피보험자 증가폭 확대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영향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입국 확대의 영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조치가 2023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가 큰 폭 증가하였다.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약 90%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피보험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2023년 상반기 중 제조업 피보험자는 약 1만 명 증가에 그쳤다(그림 25 참조).

여러 지표들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제조업 고용이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속도와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 고용 변동을 월별로 보면, 경찰 취업자는 1월 감소로 전환된 이후 3~4월 중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그림 23] 제조업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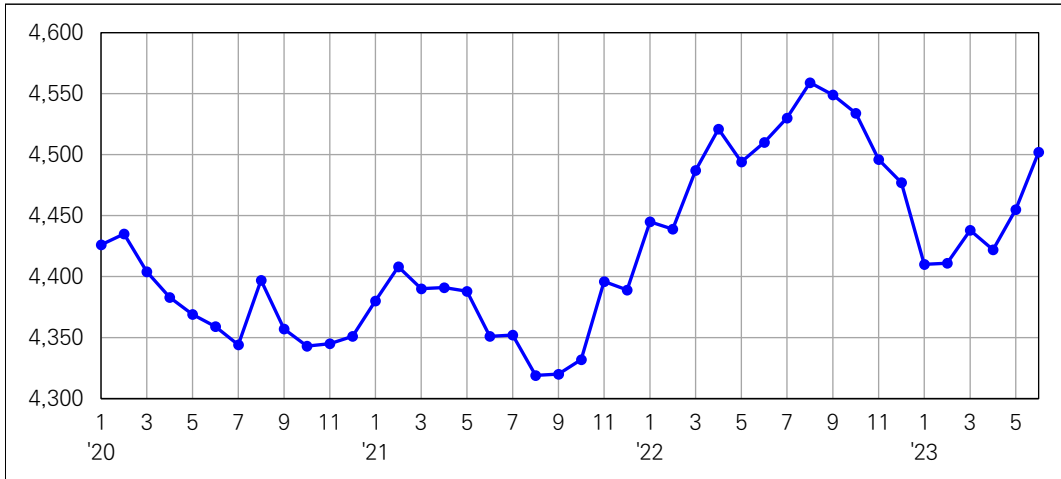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5월 이후로는 다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는 경우 기저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3월 이후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며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했었다.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이후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24 참조).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폭 축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 변동 크기는 크지 않은 수준

[그림 24]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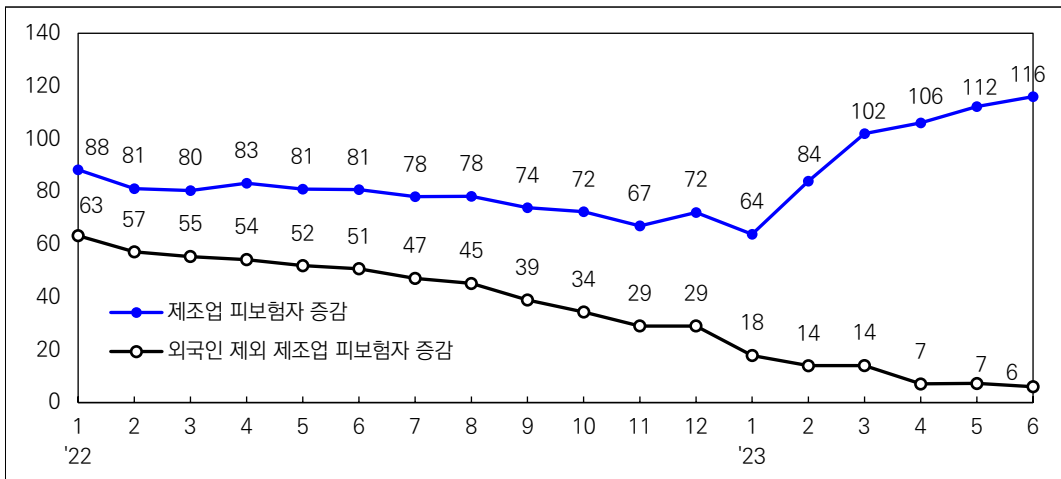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25]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제외한 제조업 피보험자 증감

(전년동월대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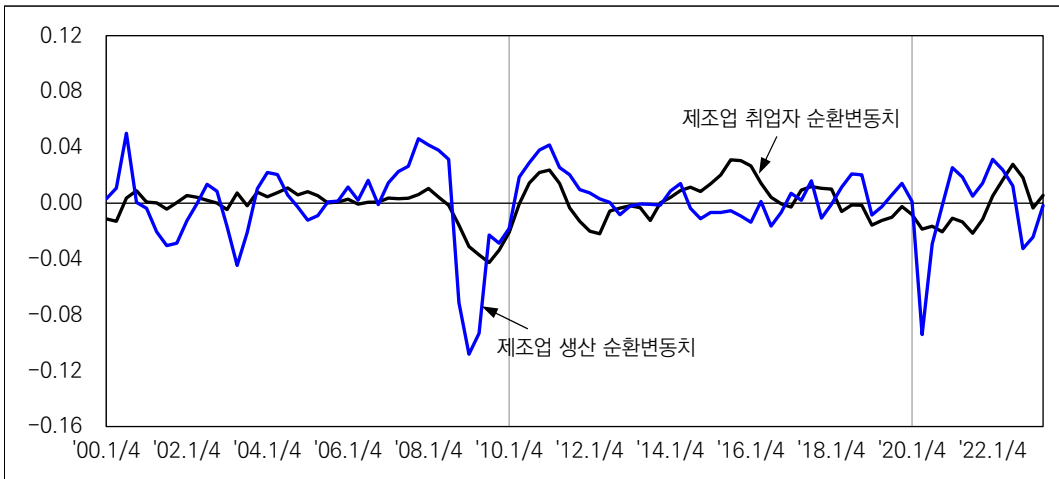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

에서 둔화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 규모가 적은 수준에 머물고는 있지만, 감소로 전환되는 등의 변동 없이 수개월째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상반기 중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 등 제조업 경기 상황과 지난해의 강한 고용 증가 기저까지 감안할 때, 고용 둔화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완만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제조업 경기 상황에 비해 올해 상반기 제조업 고용 변동이 비교적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겠으나, 그중 하나로 제조업 고용과 제조업 경기 간 관계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음의 간단한 분석을 통해 제조업 고용과 제조업 생산 간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26]은 2000년 1분기~2023년 2분기까지 기간에 대해 제조업 경기변동과 제조업 취업자 수 간 관계를 보여준다.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는 계절조정된 자료를 로그변환한 후 추세를 제거하여 산출하였다. 긴 시계에서 보면 제조업 고용은 제조업 생산과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 경기가 상승할 때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는 등 제조업 고용의 경기역행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도 존재한다. 또한 제조업 생산 변동폭과 취업자 수 변동폭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과 제조업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를 각 변수의 변동성으로 정의하여 비교해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 순환변동의 변동성은 제조업 생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추세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시계열은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움직이는데 변동하는 폭은 시기에 따라, 경제충격의 정도에 따라 크게 확대 혹은 축소될 수도 있고, 특정 시기 전후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제조업

[그림 26] 제조업 생산 및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 추이(2000년 1분기~2023년 2분기)



주: 제조업 생산 및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는 로그변환한 실질GDP(계절조정)와 제조업 취업자 수(X-12-ARIMA를 이용해 자체 계절조정)를 HP필터를 이용해 추세를 제거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생산의 변동성은 금융위기 이후 작아진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동성은 커진 것이 특징적이다(표 11 참조).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수의 순환변동치를 이용하여, 양자 간 상관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가 <표 12>에 있다. 2000~2023년 2분기까지 전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면, 제조업 취업자는 제조업 생산에 1분기 정도 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제조업 취업자와 제조업 생산 간 상관관계는 약 0.45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면, 금융위기 이후로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간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 기간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2010년 이후 기간에서는 제조업 생산과 고용 간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표 11> 제조업 생산 및 제조업 취업자 수 변동성 추이

(단위: %)

	전기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기간 제외		
	2000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00년 1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00년 1분기~ 2019년 4분기	2000년 1분기~ 2008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9년 1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	1.39	1.29	1.46	1.36	0.59	1.37
제조업 생산	2.69	3.35	2.08	2.59	2.47	1.42

주: 제조업 생산 및 취업자 수 변동성은 HP필터를 이용해 산출한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2> 제조업 생산 및 제조업 취업자 수 간 시차상관계수

	전기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기간 제외		
	2000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00년 1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00년 1분기~ 2019년 4분기	2000년 1분기~ 2008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9년 1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	<b>0.45</b>	<b>0.69</b>	0.20	<b>0.47</b>	<b>0.40</b>	0.12
	1분기 후행	1분기 후행	동행, 1분기 후행	1분기 후행	동행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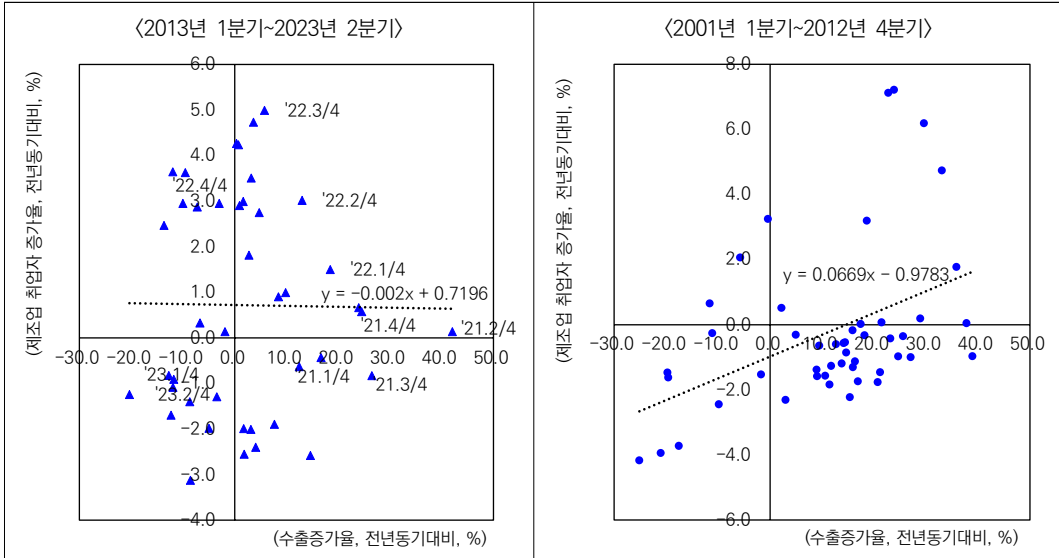
주: 1)  $t$ 기 제조업 생산 순환변동치와  $(t \pm i)$ 기 제조업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 간 시차상관계수.  
 2) 선·후행성은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3) 음영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2013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로 제조업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율 간 산포도를 그려보면 [그림 27]의 왼쪽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지난 10년간 자료에서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관계는 관찰되지 않는다. 비교를 위해 2013년 이전 기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취업자 수 간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조업 고용과 제조업 생산 그리고 제조업 고용과 수출



[그림 27] 수출 증가율과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



주: 수출 및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수출 증가율은 월별 자료를 합산하여 분기자료로 변환한 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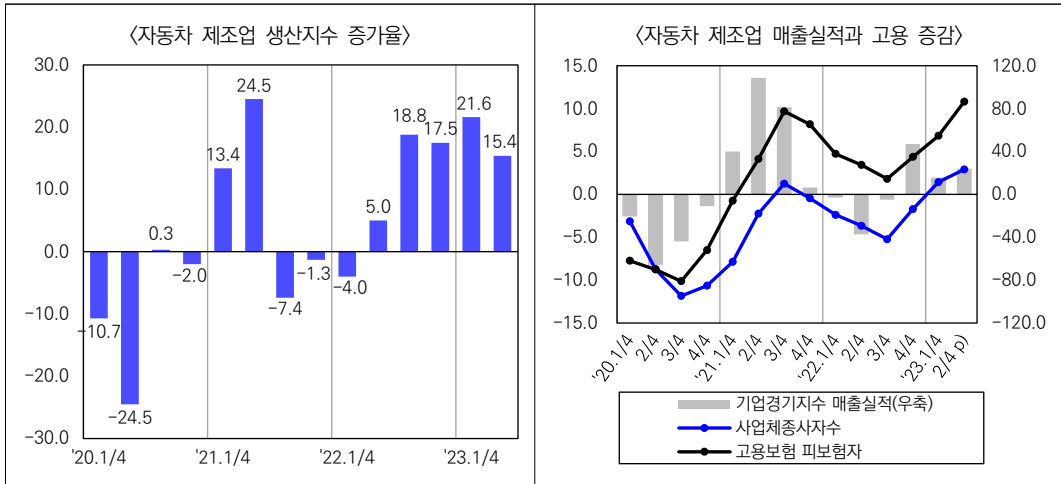
간 관계가 약화된 것이 올해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 감소와 수출 감소하에서도 제조업 고용 둔화세가 비교적 완만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제조업 고용 전체로 보면 제조업 경기와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업황에 따라 고용이 증가/감소한 업종도 있다. 자동차 제조업 고용이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 제조업 고용은 올해 상반기 중 업황 호조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자동차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2분기 이후로 증가세가 지속되어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1.6%, 2분기에 15.4% 증가했다. 수출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개선과 대기수요 실현, 친환경차와 SUV 등 고부가가치차량 판매 증가, 신차 출시로 인한 판매 증가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가며 상반기 중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총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까지는 10%를 밑돌았으나 2023년 상반기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완성차도 생산과 내수판매가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하고, 특히 친환경차(전기, 하이브리드 등)가 기록적인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완성차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 고용도 올해 상반기 중 전년동월대비 증가를 이어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매월 증가폭을 확대하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증가로 전환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중 제조업 내 다수 업종들에서 고용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는 와중에도 자동차 제조업 고용은 증가폭을 확대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차와 SUV의 판매 증가로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생산도 증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반기 자동차 제조업 고용 역시 상반기의 증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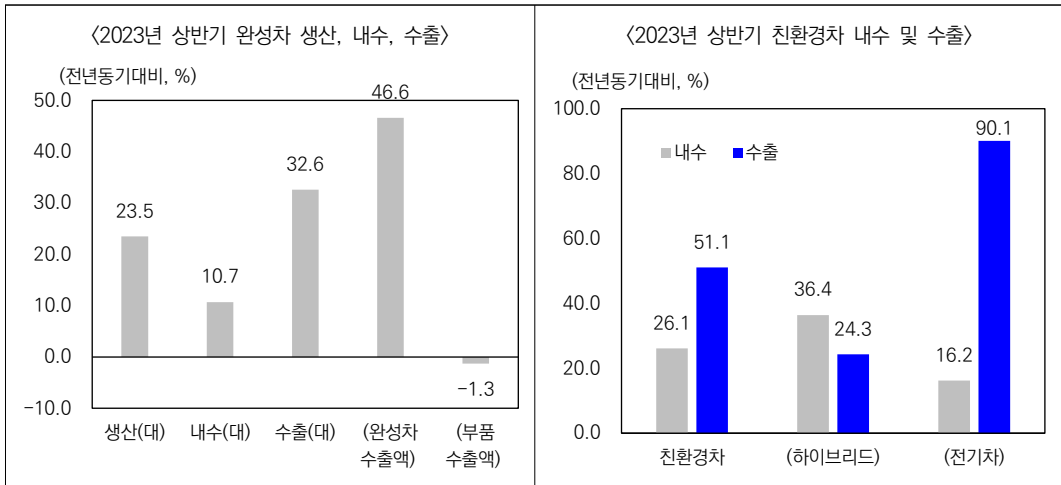
업황 호조가 지속되면서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간 업종이 자동차 제조업이라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업황 위축에 따라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업종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 크다. 반도체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

[그림 28] 자동차 제조업 생산 증가율(좌), 자동차 제조업 매출실적과 고용 증감(우)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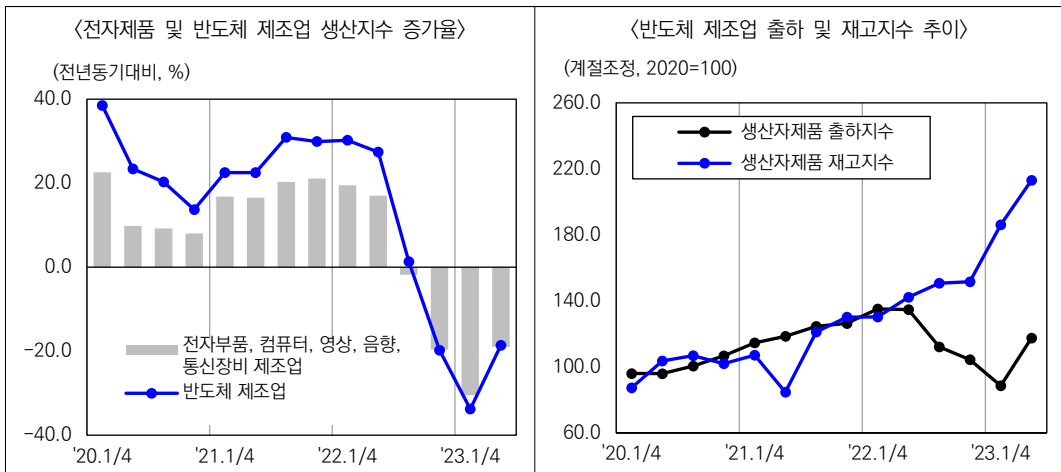
[그림 29] 2023년 상반기 완성차 및 친환경차 생산, 내수, 수출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3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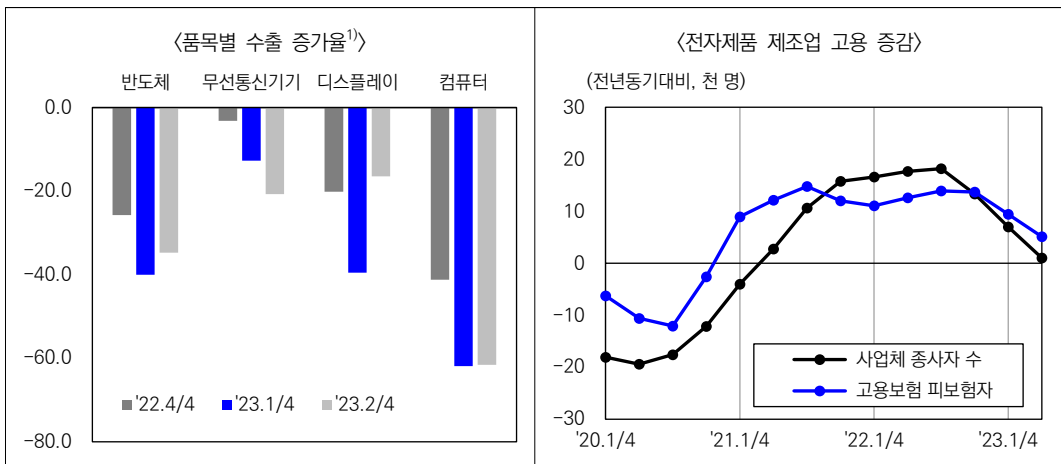
에 19.8% 감소한 후 올해 1분기에 30.5%, 2분기에 19.0% 감소하여 큰 폭 감소세가 이어졌고, 반도체 재고지수도 빠르게 상승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장기화로 글로벌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출도 큰 폭 감소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 종사자 수도 모두 매월 증가폭을 줄이며 둔화세가 나타났다. 많은 기관에서 하반기 반도체 제조업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 중 재고 증가로 기업들의 감산이 이루어진 영향이 본격화되고 하반기 글로벌

[그림 30] 반도체 제조업 생산 증가율(좌), 반도체 제조업 출하 및 재고지수 추이(우)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그림 31] 품목별 수출 증가율(좌), 전자제품 제조업 고용 증감(우)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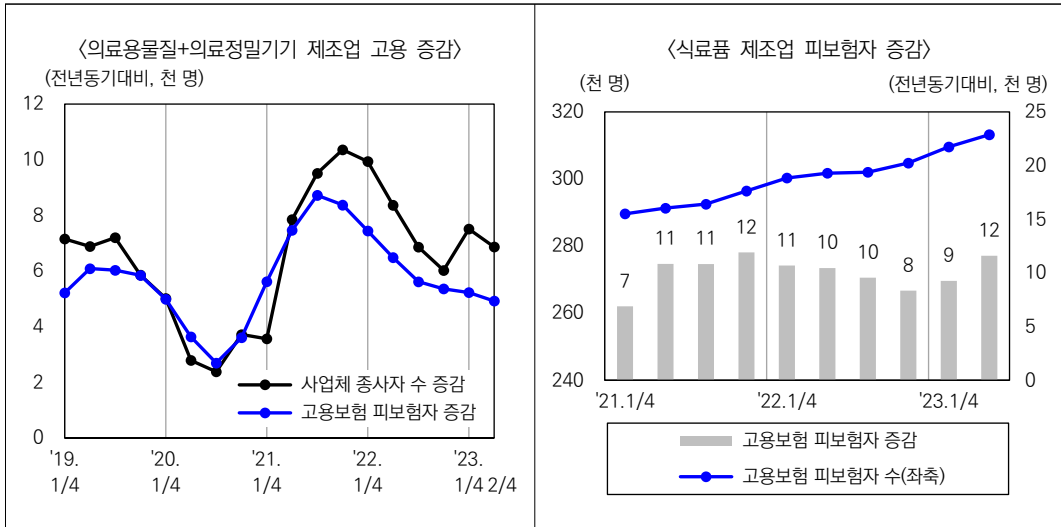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수요도 서서히 회복되면, 반도체 수출 증가를 통해 업황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 종사자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약 10%, 14%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이다. 하반기 업황 개선으로 고용도 둔화세를 멈추고 반등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의료용 물질 제조업과 의료용 기기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리고 식료품 제조업과 같이 고용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업종들도 있다. 의료용 물질 제조업과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은 아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도 고용 증가를 유지하였다. 식료품 제조업 역시 수년째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업종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약 1만 명 증가하여 금속가공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다음으로 고용 증가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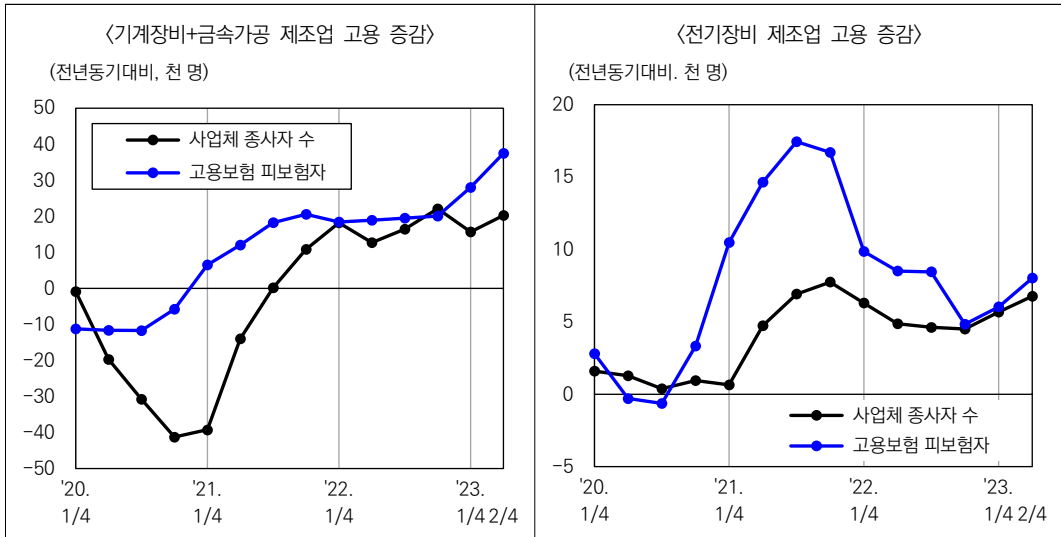
금속가공 제조업 및 기계장비 제조업은 상반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들 업종은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 증가 영향이 큰 업종으로, 피보험자 증가폭 확대만으로 상반기 금속가공 및 기계장비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좋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상반기 중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다른 지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올해 이들 업종의 고용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과 EU 등 주요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 전기차 수요의 증가는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차전지 생산 및 수출도 증가하게 되고,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도 같이 증가한다. 상반기 중 전기장비 제조업 피보험자와 사업체

[그림 32] 의료용물질+의료정밀기기 제조업 고용 증감(좌), 식료품 제조업 고용 증감(우)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그림 33] 기계장비+금속가공 제조업 고용 증감(좌),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 증감(우)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전기차 수요 증대는 당분간 이어져 하반기에도 이차전지의 생산 및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도 현재 흐름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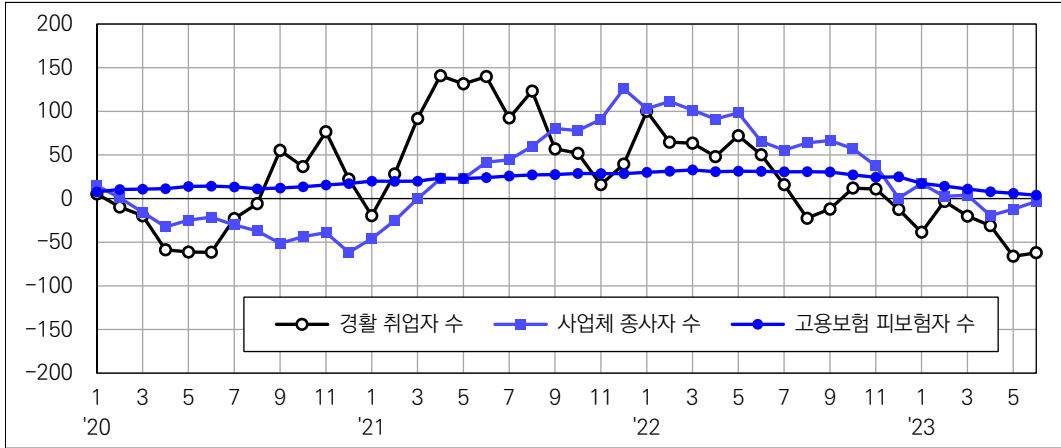
### 5. 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

올해 상반기 중 건설업 고용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경찰 취업자는 건설업 경기 부진과 전년 기저 영향이 더해져 감소폭이 확대되었다(전년동기대비 1분기 2만 1천 명 감소, 2분기 5만 3천 명 감소). 사업체 종사자 수도 1분기에 8천 명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감소로 전환되며 1만 2천 명 감소하였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만 1천 명, 7만 1천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사업체 종사자도 올해 상반기 중 눈에 띄게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역시 올해 들어 매월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올해 건설기성이 건축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그림 35 참조)한 것과는 달리, 모든 지표들에서 건설업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상반기의 건설업 고용 부진이 하반기 중에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가 2020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23년 1분기에 증가로 전환하여 2분기에도 2.2%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투자 증가가 즉각적으로 건설업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림 36]의 오른쪽에 지난 10년간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건설투자 증가율과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 간 시차상관분석을 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건설업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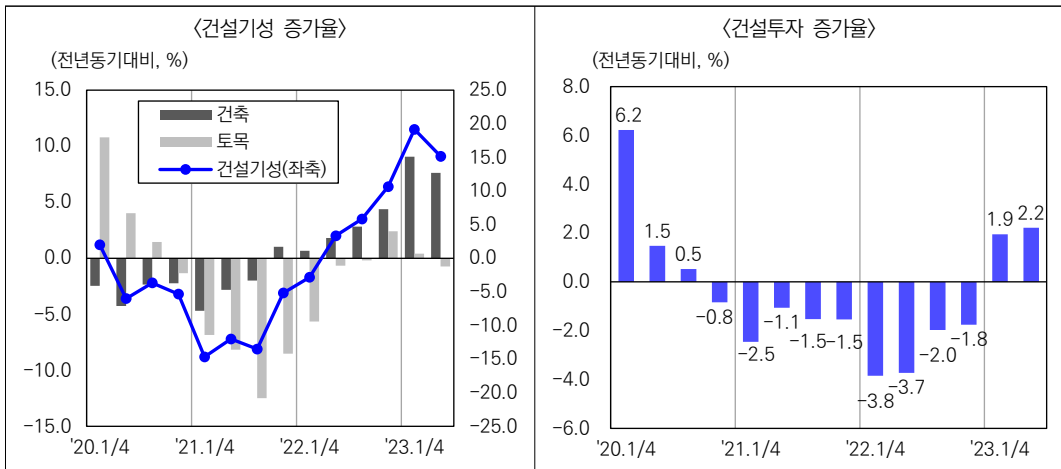
[그림 34] 건설업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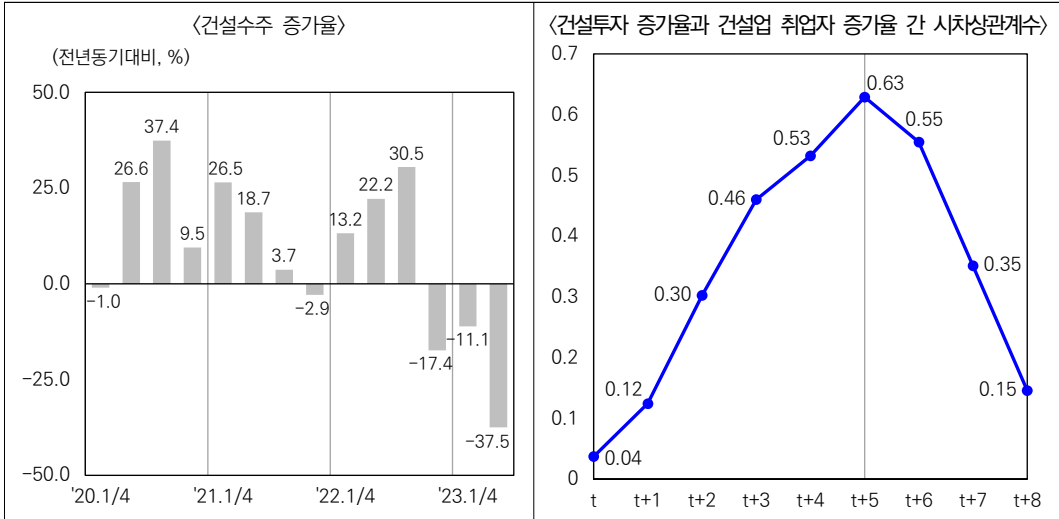
[그림 35] 건설투자와 건설기성 증가율 추이



주: 건설투자는 실질 GDP(원계열) 금액 기준, 건설기성은 불변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는 건설투자에 후행하고, 건설투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최대가 되는 시차는 약 5~6분기로 나타나, 건설투자 증가가 건설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반기에 소폭 증가했던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하반기 중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또한 전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1.1%, 37.5% 감소하였다.

[그림 36] 건설수주 증가율(좌), 건설투자 증가율과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 간 시차상관관계(우)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2) 건설투자 증가율(t)과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t+i) 간 시차상관분석 기간은 2013년 1분기~2023년 2분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하반기 중 건설 경기는 부진한 건설 지표들과 불리한 거시경제 환경으로 상반기보다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고용 역시 하반기 중에는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6.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대면서비스업 고용

2023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7.4만 명 증가하였다. 전업종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 37.2만 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2023년 상반기의 안정적인 고용상황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69.5만 명보다는 20만 명 이상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전년도의 고용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저영향이있음을 고려하면 2023년 상반기에도 고용증가 흐름을 상당 부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두드러진 고용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3년 상반기 취업자가 16.4만 명 증가하면서 산업대분류 업종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증가폭이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했던 업종으로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연속 9만 명 이상 취업자가 감소하여 2년간 19만 명이 감소했는

데, 2022년 상반기 3.3만 명, 2023년 상반기 16.4만 명으로 2년간 총 19.7만 명이 증가했다. 계절 조정 기준 2023년 6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28만 명으로, 2020년 2월 취업자 수와 동일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감 추이를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통계의 경우 2022년부터 전년동월대비 4만~5만 명 사이의 피보험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10만 명 내외의 증가폭이 유지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경우, 2023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21.4만 명 증가한 이후 6월 취업자 증가가 11.6만 명까지 줄어들어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산지수(불변지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던 생산지수가 2021년 하반기부터 고용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들어 생산지수가 감소하여 취업자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고용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의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취업자의 20% 미만이었던 상용직의 비율이 2023년 상반기에는 25%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활동연령대였던 30~59세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표 13〉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서비스업 전체	-100	31	695	474
도매 및 소매업	-142	-177	-38	-54
운수 및 창고업	66	69	112	-30
숙박 및 음식점업	-98	-92	33	164
정보통신업	-14	23	95	54
금융 및 보험업	-18	23	-33	13
부동산업	-11	-13	35	-11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16	42	75	73
사업 시설 관리 및 지원	22	49	62	-4
공공행정	-18	67	73	25
교육서비스업	-65	1	79	1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41	143	223	173
여가,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34	-38	13	37
협회·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	-53	-65	-2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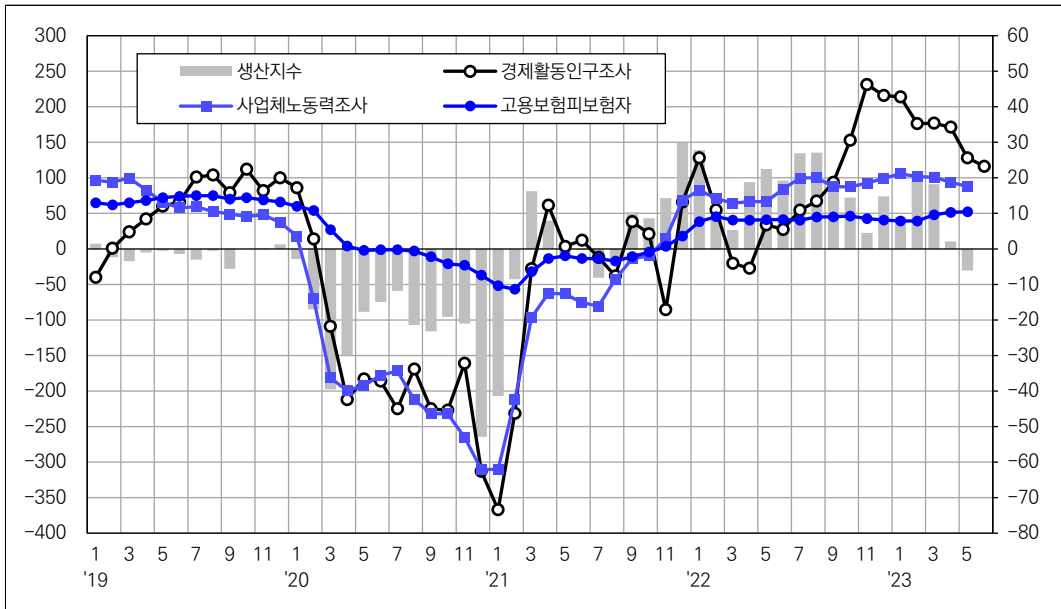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에도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가 이어진다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고용은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37]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표 14>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지위, 연령대, 성별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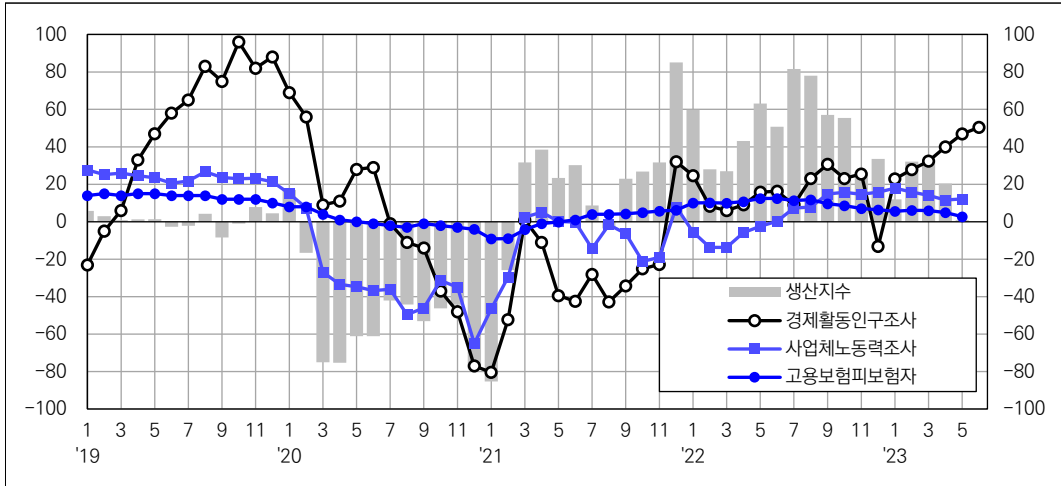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0	100.0	100.0	10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8	22.8	22.1	22.3	24.8
	임시일용직	42.8	37.6	36.7	36.8	36.4
	자영업	38.4	39.6	41.2	40.9	38.8
연령대	15~29세	26.4	26.5	26.4	27.3	28.7
	30~59세	59.6	58.0	56.6	54.6	53.6
	60세 이상	13.9	15.6	17.0	18.2	17.7
성별	남성	37.6	38.7	39.2	38.3	39.7
	여성	62.4	61.3	60.8	61.7	6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하 예술여가업)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던 업종으로, 2022년부터 전년동월대비 1만~2만 명씩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한 이후 2023년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2023년 상반기에 3.7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예술여가업의 생산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1년 반등하여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 들어 생산지수의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 고용이 생산에 비해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여가업 취업자는 계절조정 기준 2023년 6월 53.5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고점이었던 2019년 12월 수준(53.3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생산지수의 증가폭도 최근 둔화되고 있어 2023년 하반기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2019년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여가업의 고용이 증가했던 것은 같은 해 외국인 관광이 크게 늘어나 관련 업종의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해외 출입국이 재개되면서 대면서비스의 고용증가를 기대하였으나 외국인 관광이 기대보다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출입국 자료를 살펴보면 내국인 출국자에 비해 외국인 입국은 회복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내국인 출국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1~5월 내국인 출국은 817.6만 명으로 2019년 1~5월의 65% 수준을 회복했다. 베트남은 78%, 필리핀은 66.5%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특히 일본으로 출국한 내국인은 2023년 1~5월 기준 260만 명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364만 명으로 2019년 1~5월의 51%이며,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54%에 불과하다.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관광수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입국자 및 내국인 중국 출국자가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못 하고 있다. 내국인의 출국은 활발해지고 외국인의 입국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관광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용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15〉 외국인 입국자 및 내국인 출국자 현황(2023년 1~5월 기준)

(단위: 명)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9년 1~5월 (A)*	2023년 1~5월 (B)	4년 전 대비 (B/A)
(외국인 입국자 현황)							
총 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7,117,641	3,640,126	51.1%
자각-관광통과(B-2)	7,158,538	939,748	115,029	945,123	2,845,949	1,532,839	53.9%
국적-미국	1,139,150	265,134	251,203	610,103	441,421	427,804	96.9%
국적-일본	3,303,088	438,708	18,025	309,460	1,383,677	677,108	48.9%
국적-중국	6,284,486	740,039	187,908	250,876	2,436,594	429,281	17.6%
(한국계)	(1,004,319)	(132,191)	(65,929)	(43,993)	(441,497)	(78,556)	(17.8%)
(내국인 출국자 현황)							
총 계	28,905,763	4,301,903	1,234,697	6,580,145	12,599,544	8,175,880	64.9%
도착-일본	5,348,735	485,673	34,714	1,093,260	2,228,640	2,598,494	116.6%
도착-베트남	3,998,719	594,923	26,441	1,051,754	1,666,133	1,301,404	78.1%
도착-중국	3,444,204	285,974	44,641	52,203	1,435,085	173,198	12.1%
도착-필리핀	2,023,605	333,058	7,034	434,534	843,169	559,537	66.4%
도착-나머지	14,090,500	2,602,275	1,121,867	3,948,394	5,871,042	3,543,247	60.4%

주: 2019년 1~5월 국가별 내국인 출국자의 경우(총계 제외), 2019년 국가별 출국자의 \* 5/12로 계산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년 5월, 2023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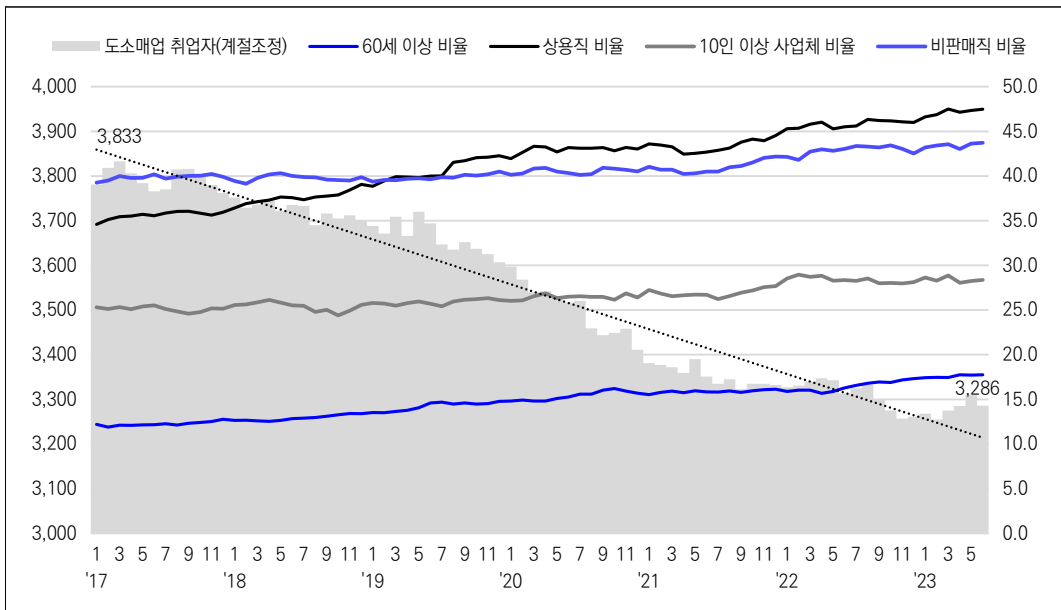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여가업과 달리, 도소매업의 경우 오랜 고용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도소매업 취업자는 5.4만 명 감소하였지만 2020년 상반기 14.2만 명, 2021년 상반기 17.7만 명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5월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계절조정 기준 2017년 3월 383.3만 명이었던 도소매업 취업자는 2023년 6월 기준 328.6만 명으로, 6년간 5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도소매업 취업자의 감소 추세를 살펴봤을 때,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기간에는 고용이 감소하는 속도가 추세보다 빠르게 나타났고, 2019년 및 2023년 상반기에는 고용의 감소 속도가 추세보다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이 감소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도소매업의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업종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업 종사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12%에서 18%로 6%p 증가하여 업종이 고령화되고 있지만 상용직 비율은 35%에서 47%로 10%p 이상 증가하였고, 10인 이상 사업체규모에서 종사하는 비율과 직종분류 중 판매종사자를 제외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임시일용직 상태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판매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 중장년층이 도소매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면서 취업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2020년과 2021년에는 비판매직과 상용직의 비율이 일정하고 추세보다 빠른 고용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2023년 상반기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고 상용직 및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비율의 증가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도소매업 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미루어보아 2023년 하반기는 도소매업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년동월과 비슷하게 취업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도소매업 계절조정 취업자 및 각 부문별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주: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왼쪽 세로축(천 명), 이외 비율은 오른쪽 세로축(%)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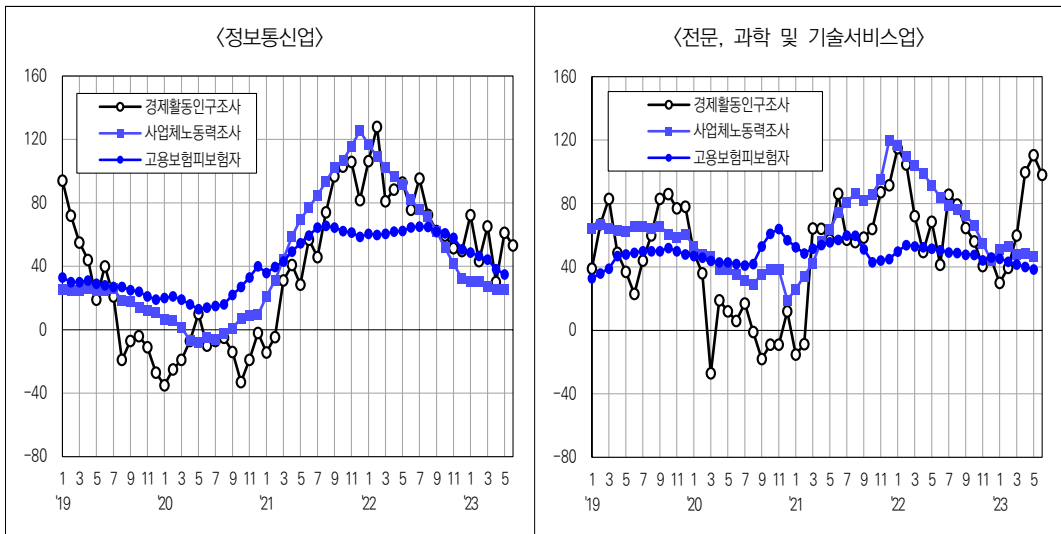
## 7.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대면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하 전문서비스업)은 장기간 취업

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4만 명 증가했고, 전문서비스업은 7.3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둔화가 발생했지만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으며, 기저효과 영향을 받지 않고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체 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통계 자료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9년부터 매달 3만~7만 명 늘어나고 있고, 전문서비스업은 4년 이상 4만 명 내외의 피보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40] 정보통신업 및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2019년 상반기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업(15.8만 명 증가)과 전문서비스업(20.6만 명 증가)에서 취업자가 36만 명 증가했으나 두 산업의 연령대별 구성비, 성별 구성비, 직종별 구성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용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남성과 36시간 이상 근무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업종 내 여성 전문직 취업자가 늘어났으나 업종 전체의 증가를 설명하기엔 부족한 수준의 증가폭이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과 30~59세, 고령층 모두 4년 동안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정보통신업 중 출판업(0.58)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출판업 내 S/W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산업이 성장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4년 동안 업종의 지속적인 고용증가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중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정보통신업은 2023년 1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 전문서비스

업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23년 2분기에 10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이는 1분기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증가폭 4만~5만 명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추세에 벗어난 변화이다. 정책변화 및 산업별 구체적인 이슈가 없이 발생하는 급격한 증가폭 확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증가폭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소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16〉 정보통신업 및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상용직, 전문가, 남성, 연령대별 비율 추이

(단위 : %)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업		100.0	100.0	100.0	100.0	100.0
종사상지위	상용직	80.4	80.6	81.2	83.4	82.8
직종별	전문가	57.9	61.3	61.6	61.8	62.2
	사무종사자	30.1	27.6	26.8	26.4	26.1
연령대	15~29세	21.6	20.1	21.8	22.2	20.9
	30~59세	73.5	74.1	72.4	72.6	73.1
	60세 이상	4.9	5.8	5.8	5.2	6.1
성별	남성	67.2	68.3	66.7	64.5	64.8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91.2	82.4	89.6	89.5	88.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8. 경기 부진 상황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 및 부동산업 고용 감소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문화와 비대면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업종으로, 2021년 상반기 7만 명, 2022년 상반기 11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취업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만 명 감소하였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취업자 감소와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시기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취업자가 감소한 2023년 상반기에도 피보험자 수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취업자 증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자 감소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에 6만 명 증가했던 30~59세 취업자는 2023년 상반기에 1만 명 감소하면서 수요 감소에 따른 취업자 감소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은 2023년 상반기에 3.7만 명 감소하면서 2020~2022년 사이 증가한 취업자 증가

폭 6.3만 명의 절반 이상이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고령층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가 주로 감소했으며, 직종별로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관련 종사자가 2022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증가한 만큼 감소했다.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관련 종사자는 택시, 버스, 화물 및 특수차, 대리운전, 지게, 크레인 등이 해당되는 직종으로 특수차, 지게, 크레인 운전직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고용둔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 음식 배달 등이 해당되는 단순노무 종사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천 명 감소하여 2022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대면서비스 위주의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배달 및 택배 관련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 들어서도 고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7〉 연령대별·직종별·종사상지위별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운수 및 창고업		11	66	69	112	-3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	29	5	47	-7
	임시직, 일용직	-4	4	26	4	-28
	자영업자	0	33	38	61	5
직종별	장치, 기계 조작	-21	-9	5	28	-25
	단순노무 종사자	22	46	62	69	-2
	나머지	10	29	3	15	-4
연령대	15~29세	5	22	23	18	-37
	30~59세	-7	19	24	58	-10
	60세 이상	14	25	22	3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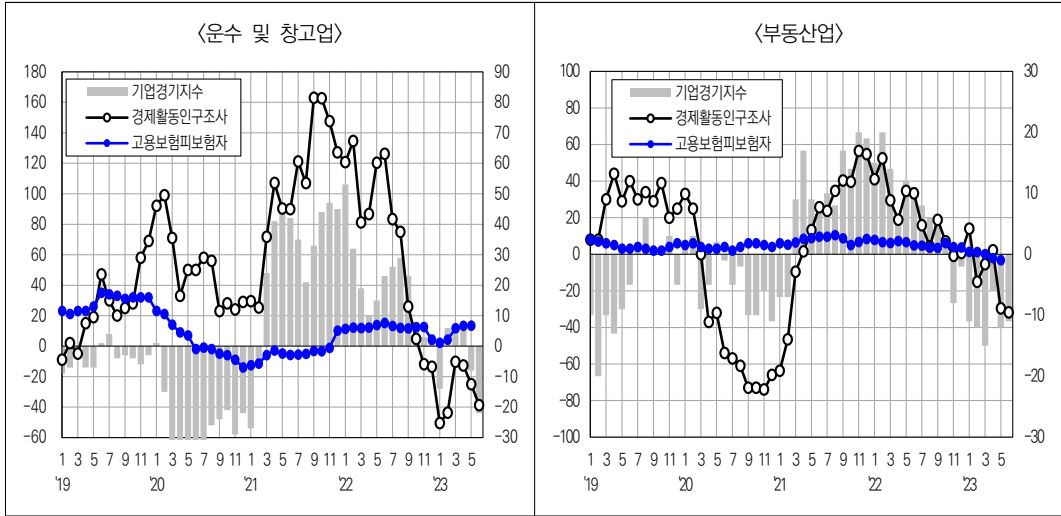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동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4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만큼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업종이다. 2023년 들어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와 함께 고용이 둔화되었다. 부동산업 취업자는 2023년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5월 들어 취업자가 3만 명 감소하여 산업 동향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업의 고용보험피보험자는 2019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전년동월대비 1만 명 내외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업의 노동시장은 운수 및 창고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부동산 중개소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면서 단기간 동안 계약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 실적에 따라 비율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관습이 남아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그림 41] 운수 및 창고업, 부동산업의 기업경기지수 및 취업자 증감

(단위: p.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사이 고용보험피보험자 수는 2019년 이후 소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최근에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전체 취업자도 함께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9.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사회서비스 분야 업종

코로나19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를 견인하고 있던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하 사회서비스업)에서 2023년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행정은 2021년, 2022년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7만 명 증가했던 업종으로, 2023년 1월까지 7만 명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후 2월 들어 증가폭이 1만~2만 명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행정 취업자는 주로 30~59세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당시 경기악화로 인한 고용부진으로 중장년층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2023년 민간지원 위주의 일자리사업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의 공공행정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공공행정 취업자는 3월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자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5만 명 이하로 대규모 직접일자리사업보다는 소규모 정책사업 혹은 일시적인 증가로 보인다. 고령층의 일자리사업 역시 직접일자리 중심에서 민간형 일자리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2023년 하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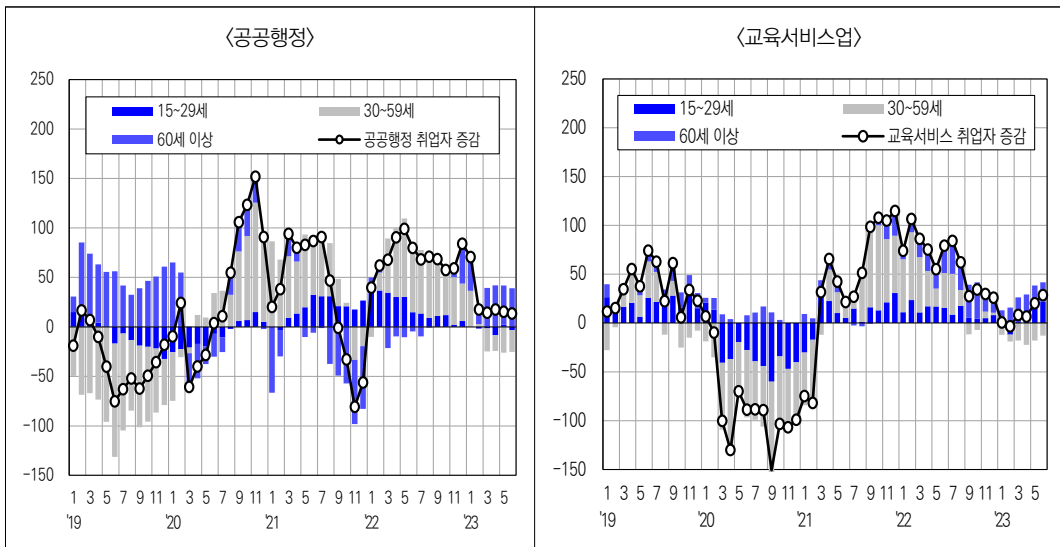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기저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취업자가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년동월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5월 들어 2만 명, 6월 3만 명의 취업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기저영향으로 2021년 크게 증가했던 30~59세 취업자는 2023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고령층으로 60세 이상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2022년 3월부터 2만~3만 명 씩 증가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에서 고령층은 크게 교육 관련 전문가(전문직+상용직)와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보조원(단순노무직+임시직)으로 나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서비스 수요 감소로 장기적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하반기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폭의 취업자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연령대별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보건 및 복지사회서비스업은 2023년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7.3만 명 증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 증가폭 22.3만 명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2022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취업자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내 취업자 증가를 이끌어 왔던 노인일자리사업(60세 이상+임시직+단순노무직+단시간근로) 내 직접일자리 영향은 크게 감소하였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3년 상반기에 8.1만 명 증가했으나 직종별로 단순노무

직이 아닌 전문직, 서비스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상지위별로 임시일용직은 3만 명 감소하고 상용직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 근로시간대별로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취업자가 8.5만 명 증가하여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둔화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주된 변화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공익활동)의 비중은 줄이고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2023년 상반기 고용동향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보건의료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소득보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고령층도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3년 하반기에도 높은 취업자 증가폭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원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많은 고령층 취업자가 순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18〉 각 부문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1	141	143	223	173
연령대	15~29세	18	-18	-29	66	-8
	30~49세	9	2	14	23	40
	50~59세	51	56	32	40	60
	60세 이상	83	<b>101</b>	<b>127</b>	94	81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8	77	57	<b>145</b>	<b>199</b>
	임시직, 일용직	35	60	94	73	-29
	자영업자	-12	4	-7	6	2
직종별	전문가	25	-21	10	<b>97</b>	<b>103</b>
	서비스 종사자	77	92	30	48	51
	단순노무 종사자	37	58	<b>101</b>	52	15
	나머지	22	12	1	25	4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	38	94	7	60	25
	15~35시간	26	102	44	36	64
	36시간 이상	98	-55	93	<b>127</b>	<b>85</b>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Ⅲ. 2023년 하반기 고용 전망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2022년 연말에 본원을 비롯한 다른 연구기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을 위해 상반기 부문별 경기와 고용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질 GDP는 전년동기대비 모두 0.9% 성장하였다. 이는 2021년 경제성장률 4.1% 및 2022년 경제성장률 2.6%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된 모습이다. 그중에서 제조업은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약 -3.3% 그리고 수출은 약 -2.0% 성장을,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지출은 각각 약 3.4%와 4.6% 성장을 보였다.<sup>1)</sup> 제조업과 고용 및 순수출과 고용은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반면에 서비스업과 소비는 모두 고용과 상관관계가 크고 동행적으로 변동한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혹은 산출물 시장과 완전히 괴리되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층과 여성, 여성 중에서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구조적인 요인으로서의 고용증가세를 보였고, 청년과 20~40대 남성이 경기와 함께 고용둔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원은 2022년 12월에 전망하였던 것보다 취업자 수 증가를 상향조정하면서 하반기 취업자 수가 상반기보다 크지 않은 상고하저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망하였다. 이는 상반기 고용동향이 복합적인 모습으로 유지 혹은 변동할 것이라는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고용의 경우, 제조업 경기와 고용 간 시차 등을 고려하면 고용이 둔화될 수 있지만 둘 간의 약한 상관관계와 현재까지의 완만한 조정속도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작년에 컸던 고용 회복 후의 기저효과, 인구집단별 구조적·경기적 고용 양상 등을 같이 고려하였다. 해당 요소들을 전망모형에 고려하였을 때 표본 외 예측력(out-of-sample forecasting)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19>는 서술한 요소들을 고려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하반기와 연간 노동시장 전망치 결과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하반기에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약 253천 명 증가하여 2023년 연간 기준 약 312천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증감률로는 하반기에 약 0.9%, 연간으로는 약 1.1%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인구증감을 고려하였을 때 하반기에 약 62.9%, 2023년 연간으로는 약 62.6%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업률은 하반기와 연간 각각 약 2.4%와 약 2.7%로 전망하였다.

1) 2023년 7월 25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조업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5%, 수출은 -0.6%, 서비스업은 1.9% 그리고 민간 최종소비지출은 1.5% 성장하였다.

〈표 19〉 2023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단위: %, 천명)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취업자	27,858	28,320	28,089	28,230	28,573	28,402
(증가율)	3.4	2.4	3.0	1.3	0.9	1.1
(증감수)	941	692	816	<b>372</b>	<b>253</b>	<b>312</b>
실업률	3.2	2.5	2.9	3.0	2.4	2.7
고용률	61.6	62.5	62.1	62.2	62.9	62.6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는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 고용이 유의하게 위축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적으로는 효율적인 수준의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후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가 다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과 산업 단위에서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식별하고 경감시킴으로써 미스매치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상반기 고용이 전망보다는 좋았지만 모든 집단에서 고르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KLI**

### [참고문헌]

장용성 · 이준석 · 최영두(2022), 「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경제학연구』, pp.33~51.

〈부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연도		상반기			분기		
		2021	2022	2021	2022	2023	2022 4분기	2023 1분기	2023 2분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	45,080 (295)	45,260 (180)	45,018 (296)	45,226 (209)	45,368 (141)	45,317 (139)	45,358 (147)	45,378 (136)
	취업자 (증감)	27,273 (369)	28,089 (816)	26,918 (119)	27,858 (941)	28,230 (372)	28,216 (604)	27,767 (397)	28,693 (346)
	(남성 증감)	(166)	(381)	(57)	(457)	(28)	(224)	(51)	(4)
	(여성 증감)	(202)	(436)	(62)	(483)	(344)	(381)	(346)	(342)
	고용률	60.5	62.1	59.8	61.6	62.2	62.3	61.2	63.2
	남성	70.0	71.5	69.4	71.2	71.1	71.5	70.3	71.9
	여성	51.2	52.9	50.5	52.3	53.7	53.3	52.4	54.9
	실업자	1,037	833	1,254	935	859	741	918	800
	실업률	3.7	2.9	4.5	3.2	3.0	2.6	3.2	2.7
	남성	3.6	2.7	4.3	3.0	2.9	2.4	3.0	2.7
여성	3.8	3.1	4.7	3.5	3.1	2.7	3.5	2.7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6,770 (-3)	16,339 (-432)	16,846 (117)	16,433 (-413)	16,279 (-154)	16,360 (-373)	16,673 (-178)	15,886 (-130)	
15~ 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	36,498 (-141)	36,233 (-265)	36,548 (-138)	36,308 (-240)	36,033 (-275)	36,130 (-297)	36,071 (-277)	35,994 (-274)
	고용률	66.5	68.5	65.8	68.1	68.9	68.8	68.2	69.6
	남성	75.2	76.9	74.6	76.6	76.6	76.9	76.0	77.2
	여성	57.7	60.0	56.8	59.4	61.0	60.5	60.1	61.8
	취업자 (증감)	24,280 (150)	24,824 (544)	24,058 (-103)	24,739 (681)	24,820 (81)	24,858 (317)	24,583 (87)	25,057 (7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